

우리네 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2 03/04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
FAX : 2275-8506
e-mail: kdta@chollian.net
홈페이지: 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둡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통권 86호 2002년 03/04월호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이윤경/

등록이 이경녀, 김희정/펴낸날 2002년 3월 15일

2	권두언	보육의 봄을 기다리며	이윤경
4	보육정책 1	외국의 보육정책 시리즈 1 - 스웨덴 편	보육정책위
13	보육정책 2	젊은 맛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회기적(?) 해결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보육종합대책의 허와 실	이윤경
17	특집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편집부
25	현장교육 1	공룡	방송희
35	현장교육 2	튼튼이 공부방의 남산골 한옥 마을 방문기	김숙자
37	현장연구	이화 어린이집의 신입아동 적응 사례	이은영 방림이
61	현장소식 1	총회를 참가하고서...	편집부
64	2002년 총회에서 질린 것(?)들	서은희는 행복하겠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이기원 이선주
67	어린이와 건강	식품 알레르기 (Food Allergy)	김영숙
70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튼튼이 형아들의 이야기	김숙자
71	영아들과의 하루	예쁜 세 살이여 안녕!	이정미
73	육아일기	무지아프던 날	전경숙
75	좋은 그림책소개	아빠랑 함께 피자 놀이를	오진원
77	알림란		편집부
78	보육계풍망		편집부
80	소식과 소식		편집부
85	편집부에서		편집부

보육의 봄을 기다리며

이윤경 · 본회 공동대표

3월입니다.

나무의 새순이 겨울의 삭막함을 몰아내는 이 기쁜 계절을 맞이하면서 마냥 즐거울 수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지난 2월 5일 강서구에 있는 시그네틱스 직장어린이집이 교사와 아이들에게 예고도 없이 철거반에 의해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농성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머니를 기다리던 아이들은 한순간에 보호받을 공간을 빼앗긴 것입니다. 시그네틱스 어린이집은 노사갈등으로 1년 가까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의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이었습니다. 2001년 12월로 보육교사들은 해고되었지만 몇몇 보육교사들이 추운 겨울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해 무임금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하였고 구청도 회사의 시설폐쇄신고에 노사합의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예고도 없이 어린이집을 철거하였고 아침에 출근한 선생님들은 깨진 구들장과 박살이 난 문과 유리창의 잔해를 보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임시로 근처에 있는 조합원의 집을 빌려 보육하면서, 노조와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복구를 위한 모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철거된 어린이집의 잔해를 보며 이 나라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른들의 문제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받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합니다.

처음 보육시설이 탁아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일하는 엄마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보호처였습니다. 어른들의 고단한 삶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생활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2002년 새해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보육교사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적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아이들을 보살피며 자신의 삶을 헌신해 온 보육교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보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보육교사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없는 시간을 쪼개 공부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사명감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있기에 일하는 부모는 마음놓고 일터로 나갈 수 있었고 아이들은 거라나 텅 빈 집에 방치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도 한없이 파내기만 하고 마르지 않은 요술 샘물일 수 없습니

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랑을 다시 생뿔게 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요구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과 보육교사가 함께 행복한 보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보육이 공적인 서비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위해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보육교사들이 스스로 나서서 요구하지 않는다면 결코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 백두부터 여성부와 복지부에서는 경쟁적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저런 계획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는 어린 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문제에 달려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과 청사진은 오랫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공공성 확보나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고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보육시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의 질적 향상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 하지만 정작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거나 구체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보살피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 재교육의 과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의 준수, 휴가의 보장, 재교육 기회의 마련 그리고 일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는 보육의 장기적인 발전과 사회적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정책도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한 두 번의 건의나 요구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루 10시간이상의 노동과 월 60만원의 저임금은 우리 사회가 보살핌 노동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 가치관을 바꾸는 일을 보육현장에서부터, 보육교사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직화된 힘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봄의 새순이 대견한 까닭은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일어서는 강인한 의지 때문이요,

봄에 피는 꽃들이 반가운 까닭은 삭막한 겨울 풍경을 잊게 하는 화사한 배려 때문입니다.

그 동안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이 가진 사회적 역할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실천으로, 변화로, 보육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한번 더 힘찬 걸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외국의 보육정책 시리즈 1

- 스웨덴 편

정리 보육정책위

시리즈를 들어가며 >>>

2002년도 1월, 대통령이 보육을 직접 챙기겠다는 발언이후에 여성부와 복지부가 경쟁적으로 장미빛 청사진을 내놓고 예산을 새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발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는 민간시장을 활성화하여 경쟁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영아, 장애아, 방과후, 야간보육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육사업에 정부가 집중투자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평가인증제만 도입이 되면 보육시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의 관련성이나 사회복지와의 관련성,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질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다양한 관점들 속에서 다양한 해답을 내놓으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선진국의 보육사례들도 많이 인용되고 어떤 제도나 운영방식은 그들을 모방하거나 참고하여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보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보육발전을 위한 정부의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선진적이라고 평가되는 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 보는 것도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외국의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스웨덴, 일본, 호주의 보육제도를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외국의 제도를 살펴볼때 있어서 한가지 중요한 점은 각 나라의 보육제도는 그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역사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모방이 아닌 우리 현실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자료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각 나라의 보육제도가 형성된 사회적 배경과 제도의 특징을 중심으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보육제도를 모색하고 바람직한 보육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온전히 우리 스스로의 몫입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총 인구수가 9백만명이 안 되는 작은 나라이다.(한국은 남한만 4천5백만명이 넘는다.) 입헌군주제로 국왕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는 내각책임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민당이 집권당이다.

스웨덴은 넓은 토지를 갖고 있었지만 남부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척박한 토지였고,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뒤늦게 산업화되었기 때문에 19세기말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난한 나라에 속했다. 1860~1920년간 전 인구의 20%에 달하는 75만 명의 스웨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이주할 정도로 빈곤은 심각했다. 그러나 풍부한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졌다. 19세기말부터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노사분규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은 격렬한 노사갈등을 겪었다. 1932년 스웨덴 사회민주 노동당(SAP, 이하 사민당)의 집권은 스웨덴 노사관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사민당은 두 차례의 보수연립정권 기간(1976~82, 1991~4)을 제외하면 육체노동자를 대표하는 스웨덴 노동총(LO)을 정치적 기반으로 해서 현재까지 줄곧 집권에 왔고, 이러한 사민당의 장기 집권 속에서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형이 확립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선진적이고 평등적인 복지정책을 펼친 스웨덴의 모델은 많은 나라의 노동자와 여성들에게 하나의 대안처럼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 전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친 오일쇼크이후에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위기를 맞이하였고 경제성장의 둔화와 실업률의 상승은 복지정책실패에 의한 결과라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경제위기와 함께 스웨덴의 복지는 축소되었고 곧 복지국가위기론(복지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면 경제위기가 온다, 또는 복지를 많이 제공하면 국민이 복지병(근로욕감소 등)에 걸리고 위기가 발생한다는 논리)이라는 자본가의 선전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스웨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선진적인 복지정책을 가지고 있고 당분간 전면적인 재수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느 나라든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의 몫을 순순히 포기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를 나누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속성은 더 많은 이윤을 찾아다니는 것이고 이익이 없다면 투자도 없다.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어떻게 복지정책을 펴기 위한 높은 세금과 기업통제가 가능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특별한 사회적 배경이 있다.

1. 조직화된 힘

- 스웨덴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잘 조직화되어 있다. 노조는 스웨덴의 가장 강력한 정치집단이고 개별 회사단위로 설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산업별노조로 조직화되어 있다. 기업주 역시 스웨덴 사용자연맹(SAF)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거대한 중앙집권적인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조직화된 기업주, 그리고 사민당으로 이루어진 정부라는 삼자에 의해 국가정책은 협상을 통한 합의가 가능해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2. 수출주도형 산업과 구조

- 북유럽국가들은 모두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스웨덴의 경우 수출제조업이 언제나 소수의 민간소유 다국적 기업(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과점 기업)에 의해 지배해 왔다는

특징을 가진다. 스웨덴은 노르웨이나 핀란드에 비해 빨리 원자재와 반가공 제품에서 자본 제품과 완공소비자 제품으로 수출을 전환했다.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에서 중요한 점은 상품의 가격이 국제경쟁력(선값)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임금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강력한 노동조합의 힘 때문에 기업은 지속적으로 임금인상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강력한 노동조합과 수출 의존성이 결합하여 임금억제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은 중앙집권적 협상 때문에 가능했다. 노동조합이 임금억제의 대가로 획득한 것은 바로 완전고용과 제도적 복지국가였다. 이런 종류의 노동거래를 위해서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스웨덴의 경우 사민당의 집권으로 가능하였다. 그래서 임금, 경제정책,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간 협상·신조합주의의 유형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3. 여성노동인력의 활용

앞서 소개한 대로 스웨덴은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이다. 산업화의 발달은 노동력의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데 국가가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국내의 국민을 최대한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로부터 노동력을 가져오는 것이다. 스웨덴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국내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스웨덴은 1971년 소득세를 개정하였는데 이는 모든 성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며, 각자 따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였다. 세금정책과 함께 초기에 진행된 복지서비스의 확장은 공공부문의 고용을(사회복지업무를 하기 위한 공무원 채용 등) 창출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고용시장으로 끌어내게 된다. 1986년의 경우 25세에서 54세까지의 스웨덴 여성 중 89.8%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에는 7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85.6%가 포함되어 있었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사와 육아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스웨덴 복지정책의 특징

1. 완전고용정책

스웨덴 복지정책의 핵심은 완전고용정책에 기반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완전고용정책이란 무엇인가?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빈곤이나 빈곤으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빈곤이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면 복지를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복지에 사용되는 비용은 세금을 통해 얻을 수 있으므로 고용되어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지비용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완전고용정책은 실업을 최소화하여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한 정책이다.

1) 완전고용정책의 장점

- ①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 수가 적어 복지비용의 부담이 적고(사회복지에 대한 필요가 줄어들며) 사회복지에 쓰일 재원은 늘어나게 되어 복지국가의 발달이 가능하게 된다.

- ② 시장소득 자체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어 사회복지정책과 조세를 통한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를 증폭시킨다. - 완전고용은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과의 소득에 따른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 ③ 노동계급의 힘을 강화시켜 단결력과 협상력을 통해 자본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 - 완전고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완전고용정책이 가능했던 배경

- ① 대외적인 경제환경의 호조건 - 주로 수출에 의한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경제적 호황기를 누린 1970년대 중반까지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 ②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물가상승 없는 완전고용정책이 가능해졌다. -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 1970년대 중반 "모든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구호는 산업간, 기업간, 직무차이에 따른 임금차이를 줄이도록 하였는데 이는 생산성이 낮은, 노동집약적인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도록 해서 비효율적인 기업은 스스로 퇴출 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만 남게 하였다. 퇴출된 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의 훈련, 재배치 과정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3) 완전고용정책을 위한 조건

- ① 포괄적 수준의 조합주의 - 임금협상이 중앙수준의 전체적인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 ② 정부의 자본시장 통제 - 기업이윤을 소비보다 투자로 유인하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재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높은 소비세율, 금융정책을 통해 낮은 이자율 유지, 자율적인 금융정책을 위한 외환 거래에 대한 통제 등이 그것이다.
- ③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복지시스템 - 사회복지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면 기술 변화 및 생산성의 문제에 따른 재훈련, 재배치에 대한 반발을 줄이고 탈상품화 현상으로 노동계급의 힘을 상대적으로 강화시켜 자본가와의 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준다.

2. 보편적, 포괄적 사회복지정책

- ① 제도적 모델이다. - 기본보장과 소득보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모든 시민은 동일한 시민권적 급여(연금)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노동자는 노동이 중단될 경우 소득보장(실업·상해 보상, 질병수당, 산후·육아휴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서비스 집약적이다. - 보건의료, 교육, 보육분야에서 소정의 분담금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공공서비스의 확대는 이 분야 취업 인구가 평균 15.4%에 이른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 유럽 대륙은 5.1%정도, 미국 등은 6.1%만이 이 분야에 취업하고 있다.)
- ③ 노인보다는 젊은이와 노동(취업)연령인구에 관심을 기울인다.

스웨덴의 가족정책

스웨덴은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복지제도를 만들어 왔다. 한국도 2001년 하반기부터 모성보호관련 법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육아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한 나라의 가족정책은 그 나라의 가족문화와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여성의 사회참여, 정확히 말하면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던 스웨덴은 여성이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왔다.

1) 가족의 특징

스웨덴의 가족은 혼전 동거생활의 일반화, 높은 혼외 출생률, 기혼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 노인 단독가구의 특징을 가진다. 가족규모는 작아서 1985년에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결혼한 부부는 평균 1.8명의 자녀가 있었다.

(1) 동거 생활의 제도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하는 형태는 스웨덴에서는 일반화된 가족형태이다.

(2) 혼외 출생아에 대한 사회적 인정

정상분만 100명당 혼외 출생아 비율은 1979년에는 37.6%이었고 1985년에는 동거가족의 57%에게 자녀가 있었다. 이러한 혼외 출생아도 사회적 낙인이나 손해보는 일없이 정식으로 등록되고 출산 급여, 부모보험, 자녀수당 등 사회혜택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 결혼으로 인한 이점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편부모 가족이 많다.

(3)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여성을 혼인상태별로 보면 1985년에는 미혼 여성 67.2%, 기혼여성 47.2%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었으며 1981년에는 미혼 74.4%, 기혼 77.7%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오히려 높아지게 된다.

2) 가족정책의 내용

(1) 탁아제도

1986년에는 2세 이하 자녀의 31%와 3세부터 6세까지 자녀의 57%가 공공탁아를 이용하였다. 공공탁아는 지역공동체에 의해 조직되며, 지역공동체와 국가 모두에 의해 보조를 받고 부모는 탁아비용의 약 10%를 지불한다. 탁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편부모가족과 자녀의 수가 많은 가족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부모의 유급노동을 돕기 위한 탁아정책의 목적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한 자녀는 탁아서비스를 받지만 둘째 아이는 그렇지 못할 경우 부모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 부모휴가보험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아기를 입양한 부모에게 주어지는 육아휴직은 정상임금의 90%를 받으며

360일간 사용이 가능하다. 연장을 원하면 보다 적은 수당을 받으며 최대 90일을 더 쉴 수 있다. 아버지가 된 남자에게는 열흘간의 부모휴가가 주어진다. 돌봄의 책임을 위해 일년에 아이 당 60일 까지 쓸 수 있고 부모가 아이의 탁아소나 학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아이 당 일년에 이들의 접촉일(contact days)을 허용한다. 임신한 여성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지급된다.

(3) 자녀수당

자녀수당에는 모두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 자녀수당, 셋째아이부터 받는 추가 자녀수당, 그리고 16세가 되었는데도 아직 독립하지 않은 경우, 의무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경우 학업보조비의 형태로 받는 연장 자녀수당이 있다. 모든 가족은 아이가 16세가 될 때까지 기본 자녀수당을 받는다.

(4) 주택수당

재산조사를 거쳐 임금, 자녀수, 특정한 한계를 지닌 주택비용에 기초하여 지급된다. 1987년에는 자녀가 있는 모든 가족의 25%에게 주택수당이 지불되었고 세 자녀이상을 가진 가족의 경우는 60%를 포함한 수치다. 수입이 없고 자녀가 많은 경우 전체 월 주택비용의 약 70%정도를 보조해 준다. 이혼시에는 자녀가 양쪽 부모에게서 살 수 있도록 부모 양쪽이 각각 주택보조를 받을 수 있다.

(5)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의 조정

자녀가 8살,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정규임금의 4분의 3을 받으면서 정규 근무시간의 4분의 3만을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6) 부양료 선불

이혼을 하여 편부모가 되었는데(대부분 여성) 한쪽의 부모가 약속한 부양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생계비를 먼저 지급하고 다른 쪽 부모에게서 배상을 받는 제도다.

(7) 어린이 연금

부모가 모두 사망한 18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지불된다. 공부를 하는 경우 20세까지 연장된다.

(8) 양자녀 수당 및 해외아동 입양과 관련된 비용

편부모가 아동을 입양했을 경우 입양 자녀수당이 주어진다. 해외입양과 관련해서 부모가 비용을 쓴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9) 장애아 보호수당

병이나 장애로 인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16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주어진다.

스웨덴의 보육정책

1) 역사

- 1836년 종일제 영아학교(infant-school) 시작 - 빈민구제와 영아기 교육을 목적으로 시작됨. 유치원프로그램과 유사하며 나중에 탁아소(creche)로 전환 됨.
- 1854년 최초의 탁아소 시작 - 일하는 여성의 영아보호가 목적
- 1935년 전국적으로 탁아소 확대 - 약 4천명의 빈민층 자녀를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 주로 자선단체에 의해 운영됨.
- 1944년 탁아소에서 보육시설(child care center)로 개칭 - 최초로 공공재원의 보조를 받기 시작함. 보 건복지부에서 담당. 편모가정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음. 자녀양육 보조금이 각 가정 에 직접 전달됨.
- 1968년 전국보육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Child Care)가 보고서(the Pre-school) 제출 - 정부의 요청에 의해 교육적, 사회적, 장학적 요소 통합 방안 제시. 스웨덴의 공립보육체제가 확장되는 출발 점이 됨.
- 1975년 유아학교법(National Preschool Act) 제정 - 공립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됨. 시가 모든 6세 아동에게 최소한 1년간 525시간의 취학전 무상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함.
- 1985년 Riksdag 안전(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대기자 명단을 감소시키려는 정치적 시도) - 1991년에 이르기까지 1.5-6세의 모든 아동에게 공립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권리 보장. 단, 부모가 일하거나 공부하는 경우에만 해당.
- 1995년 유아학교법(National Preschool Act) 개정 - 시의 책임을 유아교육과 보호 시설확충 및 공급 까지로 확장. 시는 위원 신청 후, 3-4개월 이내에 시설을 제공할 것을 명시.(1998년 스웨덴 이 법 조 항을 충족시키는 수준에 도달함)

2) 취학전 기관의 유형 및 특징

유아학교 (pre-school) 1-5세	종일/ 연중무휴 운영. 대상연령의 61% 취원 1998년 학교법에 의해 단일화 됨. 시가 관정한 특정대상의 유아에게 종일 보육 제공. 부모는 시에서 결정한 비용 납부
가정보육 (Family Day Care Home) 1-12세	종일/ 연중무휴 운영. 대상연령 중 1-5세 아동의 12% 취원 1998년 학교법에 의해 단일화 됨. 시가 관정한 특정대상의 유아에게 종일 보육 제공. 부모는 시에서 결정한 비용 납부
개방유아학교 (Open Preschool) 1-5세	부모지원체계. 유아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둔 부모들이 다른 부모들을 만 나서 자신의 육아경험을 나누고 교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 한 기관. 무료이며 부모가 원하기만 하면 참여가능. 점차 감소추세이며 가족지 원센터(family resource center)로 바뀌고 있음.

3) 비용의 부담

1991년 지방정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자금지원 체제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책임과 역할 분담이 만들어 짐. 이에 따라 정부는 시의 활동에 대한 목표와 지침, 재정적인 틀을 제시하 고 시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과 재정할당 방안을 결정함. 289개 시의 업무 가운데 교육관 련 예산이 전체 비용의 1/3을 차지하고 이 가운데 50%가 유아기에 사용됨(1998년도).

70-80년대 - 중앙정부 45%, 지방 정부 45%, 부모 10% 부담(부모의 수입에 따라 차등)

1998년 - 부모 부담이 다소 증가하여 부모가 전체 보육비용의 17%를 부담.

비용은 아동의 출석시간을 기준으로 결정

4) 보육환경

성인 대 유아의 비율은 "유아가 성인과 자주 상호작용 해야된다"는 신념에 따라 4-6세 유아의 경우 1: 5-1: 8의 비율로 운영 함. 지방마다 다소 기준에 차이는 있으나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 담당교사는 3년간, 보조교사는 1-2년간의 교육훈련기간이 요구 됨.

가족 정책과 평등의 가치

여성이 가족생활과 노동시장에서의 일을 병행하는 문제에 대한 스웨덴의 해결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 적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새롭고 여성 친화적인 가족/일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육아 문제 해결에 있어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 전형적인 스웨덴 가족은 두 명의 일하는 부모와 국가가 지원하는 탁아소에 있는 자녀로 구성된다. 전형 적 가족에서는 대부분의 여성은 시간제로 일하고 남성은 전업제로 일한다. 1986년 노동에 참여하는 25-54세의 여성 중 10.9%가 주당 1-19시간의 "짧은 시간제"일을 했고 37.9%가 20-34시간의 "긴 시간제" 일을 했다. 7세이하 자녀를 둔 고용된 여성의 67% 이상이 시간제 일을 했다. 남성의 경우는 단지 10.5%만 이 시간제 취업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소득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 스웨덴에서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원인인 노동조합의 성장은 남성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이 여성고 용이 증대되어 가는 오늘날에 와서도 여전히 여성에게 보이지 않은 성별분리를 강요하고 있다. 아직도 노동자는 남성이라는 가정에서 모든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고용주들은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이 직장에 충 분한 헌신을 할 수 없다고 느낀다. 부모휴가로 인해 경력레도가 짧아지거나 변경되는데 부모휴가 사용자 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새로운 노동자인 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평생 전업 노동자"라는 지위를 얻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여성을 도와주는 개혁들은 경제에 필요하다고 해석될 때만 가능한 것이었다. 맨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민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여성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유급노동에 여성들이 충원될 수 있었고 이를 위한 복지정책이 만들어진 것이다. 복지국가 예산들은 특정하게 낮은 임금 수준이라는 가정 위에 세워진다. 복지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보육교사를 포함하여) 낮은 임금수준을 감수하도록 강요받는다. 심지어 이러한 예산들도 복지기금을 줄이고 더 많은 돈을 개별 가정에서 부담하도록 하고자 하는 보수적 시

도들에 의해 공격받는다. 스웨덴에서조차 의료보호, 노인보호, 아동보호 제도를 민영화시키고, 영아기가 지난 어린이의 어머니들에게 노동시장을 떠나 아이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 보육비용을 어머니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의 국제화와 자본주의 가치인 합리성, 효율성, 생산성이 복지의 가치인 돌봄, 양육, 공동체 가치를 어둡게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몇몇 스웨덴 여성들은 전통적인 조직 밖에서 복지국가 프로그램을 보존하고 그들의 정치적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과 노조를 조직하고 있다. 스웨덴 복지모델은 다른 나라에 비해 평등의 가치 구현을 상당부분 진척 시켜 왔으나 여성과 남성간의 성 평등에 이르러서는 아직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스웨덴 모델에서의 교훈

한국과는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다른 스웨덴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스웨덴의 교훈은 복지정책의 실현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노력에 따라 발전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는 단순히 이념적 또는 당위성만으로 이루기 어려우며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계층의 조직화된 힘, 곧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상당부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후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화되는 것과 조직화된 노동조합이나 단체들이 복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도록 하는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 정책에 있어 성평등적 관점이 매우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양육의 책임이 가정과 부모 특히 여성에게 있다는 의식이 강한 한국의 상황에서 보육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서비스의 수행자인 보육교사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육문제의 해결이 일하는 부모의 짐을 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행해야 되는 과제가 아니라 아이나 부모가 가지는 애정에 대한 욕구까지 배려하는 것이 될 때 진정한 돌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옮김/ 새물결 출판사/ 2000
- 스웨덴의 가족정책 연구/ 김주숙(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지 창간호/ 2000
- 변화하는 복지국가/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역/ 인간과 복지/1999
- 복지국가론/ 김태성, 성경룡/ 나남출판/ 2000
- OECD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및 제도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00

젊은 맛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획기적(?) 해결을 위한 법정부차원의 보육종합대책의 허와 실

정리 편집부

지난 3월 6일 정부는(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가정보육모제도 도입, 보육료 규제 완화, 영아전담시설 기준 완화, 공단, 병원 등 주변에 야간·휴일·전일(24시간) 보육시설 확충 등이 이번 발표안의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안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10년 발전방안과는 또 다른 내용으로 특수보육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보육의 문제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안이다. 즉, 정부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보육시설의 80%인 민간보육을 사교육의 시장으로 열어놓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지에서는 이번 발표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부는 영아(0~2세)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 영아전담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 여성주부인력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도 소수의 영아보육을 전담하는 가정보육모 양성·배치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 영아전담시설 기준은 영아 30명 이상이다. 이 기준을 낮추고 영아전담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거친 가정보육모가 3인 이하의 영아보육을 담당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돌보는 자의 질적인 측면을 보자.

현재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최소 1년 1000시간이다. 1년의 기간은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로서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짧은 기간동안 교육을 받고 배출된 가정보육모에게 어떤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영아들이 더 돌보기가 쉽고 아이가 클수록 교육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영아기의 정

서적, 환경적 안정은 그 아이의 미래를 좌우한다.

즉 다시 말해 영아를 돌보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객관적으로 훌륭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로, 질적 관리의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은 이미 알다시피 20%도 안 된다. 그나마 그 시설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에 일정 정도 행정지도나 재정 감사를 받으며 질적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80%이상의 민간보육시설은 정부의 지원이 없기도 하려니와 민간보육시설을 개인영리사업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보육담당 공무원의 부족 등으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발표안에 보면 현재 보육담당 공무원 1인당 관리되는 시설은 전국평균 40개이고 부천시의 경우 348개의 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정보육모에게 까지 정부의 행정력이 미칠 수 없다. 지금도 민간보육 시설에서는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가정보육모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가정보육모 중에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딴으며, 아동방치를 위한 하루종일 TV보여주기 등 파행적인 영아 돌봄이 생기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는가?

지금도 개인에게 아이를 맡긴 맞벌이 부부 중에는 아이의 정서적 불안정이나 비디오중후군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가정보육모제도는 현재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무자격자의 베이비시터를 제도화함으로써 부족한 자질의 가정보육모에 국가 인증을 해주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영아보육서비스 확충이라는 정부발표안을 실행하면서 국가 재정을 최소화하면서 사시장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성인여성이면 누구나 3개월의 교육만 받으면 영아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건복지부의 남성과 여성유류 인력 활용에만 신경 쓰고 아동의 인권은 무시하는 노동부와 여성부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 또한 야간, 휴일, 24시간 등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수가 많은 공단, 병원소재지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보육시설도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대폭 확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에 영아, 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에 인건비 등 약 528억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했으며, 2003년부터 보육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 화가 누차 주장해 왔던 바이며 이러한 지원에 대한 계획은 환영한다. 특수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은 이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과후보육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실행해야 할 것이다.

3. 정부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료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의 창의적 사업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이 말은 민간의 창의적 사업여건을 조성한다는 의도보다는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자율화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정해져있던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선을 없애고, 보육 시설 운영에 맞춰 스스로 보육료를 정하고, 결국엔 그것을 부모들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가 상승되는 것은 뻔한 이치이며, 그 부담의 하중은 아동별 지원이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민간보육시설이 80% 이상인 우리나라의 보육현실에서 대다수의 부모는 높은 보육료를 부담하게 되고 민간의 창의적 사업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육이 그야말로 사적 시장논리에 맞춰, 보육의 공공성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에도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아동모집을 위해 부모들의 조기교육 욕구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 학원식 수업진행 방식으로 운영하여, 충분한 놀이와 생활체험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어 가야 할 유아들을 혹사시키고 있다. 민간시설 보육료 규제 완화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며, 가난한 부모를 둔 아이들은 보육사업에서 소외 받을 수 있다.

4. 보육교사 등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양질의 인력이 보육서비스 산업에 유입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보육교사의 국가공인자격증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자격증제도 도입 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육교사는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사회로 넘어온 아동양육의 책임을 보육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즉 준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보육교사의 근무조건은 중소기업의 그것보다도 못하다.

보육사업활성화 방안에서 정부는 현재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낮은 원인을 보육의 질적 수준이 보육 수요층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고급 인력들이 보육현장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발표는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계획안에는 추진한다는 말만 있을 뿐 어디에도 구체적인 예산 배당이 들어 있지 않다. 때문에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언급된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과연 정부의 의지가 있는 계획인지, 서서히 일고 있는 현장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당근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상으로 정부 발표안에서 문제가 많은 몇 가지를 짚어 보았다. 정부의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면서 활성화 계획이 보육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나왔는지 의심스럽다.

이번 보육활성화 방안은 한 사회의 미래구성원, 즉 국력을 키우는데 정부가 책임과 비전을 가지고 고민한 계획이라기 보다는 부모들의 요구에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점차 축소하고 민간에게 떠넘기는 정책방향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 속에서 50년 후 우리 나라의 아이들의 수는 과연 몇 명일까? 이미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프랑스의 출산율인 1.70%보다 낮은 1.42%(1999년 기준)이다. 더 이상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 가정의 문제일 수만은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진 구멍 때우기식 정책을 지양하고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한 바른 보육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1. 정부는 보육료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보육문제 해결에 있어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과제임을 천명하고 모든 보육정책에 이를 반영하라.

1. 정부는 아동별 차등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와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라.

1.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1. 저소득층자녀를 일정비율이상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인건비 등을 지원하라.

1.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라.

“국가는 사회성원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지난 1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체계와 2002년 봉급액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발표된 인건비 총액은 오히려 증가했었다. 이에 본회에서는 보육교사 봉급체계에 대한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1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봉급액수를 수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공립보육교사 1호봉이 3.4% 정도 인상하였으나(총액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총액임금제에서 수당제로 봉급체계를 전환한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3.4%라는 허울뿐인 인상금액에 대한 어떠한 근거들도 제시하지 않았다.

봉급체계 변동에 대한 소식을 접한 현장의 많은 보육교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보육교사의 어려움과 그에 비해 열악한 근무조건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본회에서는 이러한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이후 보육교사처우개선을 위한 힘모으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회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우리들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성명서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200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기준을 발표한 후 많은 현장교사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IMF를 기점으로 현장 교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수체계가 총액임금제로 바뀌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다시 수당제도로 바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실제 불가인 상을조차 반영하지 못한 금액으로 보수기준을 책정한 것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본회는 그 동안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단순히 보육교사 개인의 임금문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육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 동의해왔다고 생각한다.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인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공립보육교사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민간시설의 보육교사들은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힘든 저임금과 장시간 근무로 희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의 방법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보육교사는 어떤 시설에서 근무하든지 간에 동일한 역할을 요구받으며 따라서 처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공립보육교사 임금체계는 보육교사 보수기준의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는 보육교사의 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보육은 자유시장경쟁원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육은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고, 아동에게 안전하며 발달에 적합한 환경과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보수체계의 변화와 급여인상에 대한 논란은 단순히 몇 만원의 돈을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보육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가 보육의 질에 대한 어떤 전망과 발전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우리는 보육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곧 보육의 질적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보육교사 보수기준의 현실화, 재교육기회의 마련, 법정 근로시간 준수, 경력관리를 위한 임면보고 시행, 4대 사회보험의 가입 및 휴가 사용의 보장 등.
1. 정부는 보육교사의 양성제도 개선과 자격증제도 도입을 통해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질 높은 보육교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정부는 아동의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교사 대 아동비율의 하향조정, 급간식 기준과 안전기준의 세부지침 마련과 강화,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 확대 등.
1. 정부는 공보육의 비율을 높이고 시설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의 강화를 통해 보육의 전반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2년 1월 31일 한국보육교사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

최근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 봉급기준표를 발표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현장 보육교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보육정보센터 등에 올라온 내용들은 주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와 보건복지부의 낮은 임금기준에 대한 불만이었다.

한 교사는 게시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육교사로 일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새해 들어 봉급을 받으니 여전히 맥빠져 나오는 한숨...

여지껏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일에 몰입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긴 세월을 묵묵히 지내왔는데...

당직으로 지친 몸, 다음날도 아이들과 꼬박 열 시간을 보내고서도

질 높은 보육을 위한 죄책감에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저 하는 만큼만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선택하여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2001년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온 한국보육교사회는 이러한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힘 모으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지역만이 아니라 멀리 경북에서도 참가하는 등 평소 모임을 갖기 힘든 보육교사의 현실을 생각할 때 뜨거운 호응을 받아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2월 6일, 명동에 있는 전진상 교육관 강당에서 보육교사 130여명이 밤 9시를 넘기며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보육교사들은 발언시간을 통해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터트렸다.

"민간시설에서 일하다가 국공립으로 옮겼다. 처음에는 경력을 인정해 준다고 경력대로 호봉을 주다가 갑자기 민간시설에서 일한 경력은 인정을 못해준다면서 받았던 월급을 다시 환급하라고 했다. 다른 직장에서도 그러는지, 정말 황당하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같이 지내야 되니 수업 준비 할 시간도 없다. 아이들에게 줄 종이라도 오리려고 하면 아이들이 달라붙는데 어떻게 일을 하나? 집에까지 일을 가져가서 할 수밖에 없으니 사실 우리는 하루종일 근무하는 것이나 같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나?"

"급식비가 월급에 포함되는데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고 도로 반납하게 한다. 1년간 급식비 48만원을 빼면 실제 급여는 오히려 삭감이다."

실제 보육교사들의 대다수가 주당 60시간 가까이 근무하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지급도 없고, 월차나 휴가가 거의 없어(4년 경력자 1년 평균 휴가일수 10일) 노동강도가 높다. 특히 민간시설 교사의 경우 초봉이 50-60만원 수준으로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다.

※ 주당 평균근로시간 99.5시간-법정근로시간 주당 44시간-초과근무시간 15.5시간.

15.5시간 × 3,000원 × 4주 × 12개월 = 2,232,000원

(시간당 급여액: 서울시 대체교사 인건비지원기준)

60만원 × 12개월 = 7,200,000원

7,200,000원 - 2,232,000원 = 4,968,000원

→ 법정근로시간에 따른 월보수 41만4천원 (최저임금기준 47만4천6백원)

이번 토론회에서 보육교사들은 보수기준 현실화, 법정근로시간 보장, 재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사 재교육비 지원 등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다양한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이 자리에서 처우개선이 보육교사의 권리를 찾는 일이며 동시에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보육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 [보육교사처우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힘모으기 토론회 현장의 목소리]

“법정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이고 특히 여성에게는 꼭 지켜져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육교사들은 당직을 하는 등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 봉급체계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없다는 것에 화가 났어요.

또 한가지는 우리 나라는 경력이 많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있으면 시설에서 부담스러워 해요. 독일에서는 보통 40, 50대 교사들도 많고 경력이 2, 30년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유로워 보였어요. 안정된 느낌이 들었고 아이들도 행복해 보였어요.

보육교사의 힘이라는 것도 많이 머물러 있어야 힘이 되는 것인데 계속 교사들이 바뀌고 1호봉, 2호봉 교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집이 재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경력 있는 교사가 어느 정도 있어야 어린이집에 제대로 굴러가지요. 경력 많은 교사부터 인건비 지원을 하여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이고 경력 있는 교사가 오랫동안 보육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해요.”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사실 내 몸이 힘든데 아이들이 예뻐 보이겠어요? 제가 힘들 경우에는 앞에 아이들이 와서 붙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은 방학이 1주일 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설은 그것도 보장이 안되어 교사들이 방학기간 동안 당직을 하며 제대로 쉬 수 없다고 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하고 비교하면 거기 교육공무원이고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럼, 그들은 사람이고 저희는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도 쉬어야 또 함내서 일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육교사가 공부를 해야 아이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해가 부족해요.

연수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럴려면 부모에게 아이를 보내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웬만한 교육은 그냥 포기하게 되죠.

보육교사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보내주죠. 그래서 보육교사들도 쉬어야 해요. 저도 겨울에 독일에 다녀왔는데 그 곳 교사에게 아이들을 돌보다 지치면 어떻게 에너지를 재충전을 하는가를 물어 봤더니 왜 교사가 지치냐며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자기네 교사들은 지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대체교사가 정말 많아요.

자원봉사자나 공익요원 등으로 대체해서 교사가 충분히 쉬 수 있게 하고 하루 일과 중에도 교사가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이가 집에 가기 전까지는 쉬 수가 없잖아요. 우리 보육교사들도 쉬기 정말 필요합니다.”

“현재 보육교사는 자격취득의 과정이 달라요. 4년제부터 2년제, 1년 과정 등 그러므로 차등임금제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로 수업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가위질이라도 할라치면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집에 싸들고 가서 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의 근무시간이 12시간은 턱도 없지요. 보육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나 비상근교사를 확보했으면 해요. 그래서 다만 2시간이라도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보육의 질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보육교사들은 연수비용이 많이 부담돼요. 월급도 적은데 연수비용까지 개인이 부담하고 또 자기 휴가를 써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많이 부담돼요. 보육교사가 연수를 받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동 정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4세일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이 한명당 7명이에요. 그런데 5세가 되면 교사 한명당 20명으로 늘어납니다.

4세였다가 5세가 된다고 해서 아이의 능력이 바로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아이들이 늘어나면 아이들도 너무 힘들고 교사도 힘들다. 아동 비율은 꼭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민간에서 있다가 구립으로 옮기면서 경력인정을 받았다가 갑자기 안 된다면서 다시 환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어린이집에 관한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갑자기 연봉제 한다고 하더니 또 수당제로 바뀌고... 정말 중심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린이집에서 경력 인정을 하면서 대학에서 특별전형으로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인정하는 경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보육교사 경력은 정부에서 관리하며 경력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에서 경력관리를 하게 되면

보육교사 경력관리에 비리가 생기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보육교사 경력관리를 정부에서 하도록 요구합니다.”

“민간에서 열심히 일해서 경력을 쌓고 국공립에 가면 1호봉부터 출발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을 철저하게 개인 사업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개인이 가게에 여러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민간시설의 보육교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원장과 보육교사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복지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는 공적서비스입니다. 동일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일하는 국공립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경력도 보장되어야 하고 호봉도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보육교사의 일은 똑같지 않습니까? 민간 보육교사는 애들 똥만 닦나요? 아니지요. 일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공보육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국공립시설 몇 개를 더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보육이라는 것의 공익적 성격을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그래서 민간보육교사의 인건비도 지원하고 관리도 하고 보육교사 경력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의 요구]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보육시설은 일하는 부모의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와 어떤 아이도 방치되거나 소외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아동인권보장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해온 전국의 44,544명의 보육교사들은 적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으로 일해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고는 정당한 평가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2년도 급여기준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라는 과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IME를 기점으로 현장 교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수체계가 총액임금제로 바뀌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다시 수당제도로 바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실제 물가인상을조차 반영하지 못한 금액으로 보수기준을 책정한 것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단순히 보육교사 개인의 임금문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육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 동의해왔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가 지원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공립보육교사 임금체계는 보육교사 보수기준의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는 보육교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인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공립보육교사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민간시설의 보육교사들은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힘든 저임금과 장시간 근무로 희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의 방법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보육교사는 어떤 시설에서 근무하든 기간에 동일한 역할을 요구받으며 따라서 처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은 자유시장경쟁원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육은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고, 아동에게 안전하며 발달에 적합한 환경과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보수체계의 변화와 급여인상에 대한 논란은 단순히 몇 만원의 돈을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보육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가 보육의 질에 대한 어떤 전망과 발전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우리는 보육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곧 보육의 질적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예산이 확대, 배정되어야 한다.
 - ① 보육교사 보수기준을 현실화하고 민간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② 재교육기회를 마련하고 재교육기간동안 대체교사 확보방안 마련과 인건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
 - ③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경력관리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임면 보고를 시행해야 한다.
 - ⑤ 4대 사회보험의 가입 및 휴가 사용의 보장 등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⑥ 보육교사의 연구시간 확보와 이를 위한 인력지원을 통해 질 높은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⑦ 국공립시설이 명실상부한 공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건비지원비율(45%)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1. 정부는 보육교사의 양성제도 개선과 자격증제도 도입을 통해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질 높은 보육교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정부는 아동의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① 교사 대 아동비율을 현행보다 하향조정하고 연령과 장애여부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② 급간식 기준과 안전기준의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 확대 등 아동을 위한 제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부는 공보육의 비율을 높이고 시설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의 강화를 통해 보육의 전반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2년 2월 8일

한국보육교사회

보육의 질적 향상을 바라는 보육교사 일동

'우리네 아이들' 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아이들' 을 주변의 아는 사람에게 추천하시고자 하는 회원, 자료회원 여러분은 받으실 분의 주소와 이름, 연락처를 중앙 사무국에 알려주십시오.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공 룽

{ 아래의 글은 2001년 서울여성발전기금을 지원 받아 실시한 인터넷활용 현장사례공모전 '인터넷에서 놀자'에 우수작으로 당선된 작품입니다.}

심사평>>

주제의 흐름진행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룡에 대한 정보를 찾아 인식하는 과정에 한정된 점이 아쉽습니다.

본 자료는 서울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에서 실시한 인터넷 현장활용 공모전 우수상 당선작입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에 있으며, 허락없이 무단 게재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계획서

교육주제	공룡(인터넷으로 알아보아요)
교육기간	2001년 11월 19일 ~ 2001년 11월 30일
대상연령	7세 (1995년 3월 1일생 ~ 1996년 2월 29일생)
교육인원	21명(남아: 8명/ 여아: 13명)

1. 들어가는 말

120년전 전화기를 발명했을 때 사람들은 전화기의 유용성을 물었다. 전화기를 통한 의사소통이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리라는 짐작도 못했었다. 이러한 역사가 인터넷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화시대에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사회적인 매체이며 가상세계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생활에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사용을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기관에서 인터넷을 교육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할때 아직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글과 지시문이 있는 인터넷을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린이에게 발

달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다양한 정보의 욕구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교사가 주도하여 인터넷을 교육에 적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인터넷 사이트 평가 준거(children's Internet Site Evaluation Instrument, Buckleitner, 1998)에서 제시하는 평가 항목을 가져야 한다고 이경우 (유아를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는 주장하고 있다. 즉, 사용의 용이성, 교육성, 오락성, 디자인 측면, 안전성과 책임감 있는 좋은 site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준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site를 찾기에는 교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인터넷을 검색하는 사전작업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장의 수업상황에서 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즉각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할 때 교육현장에 적합한 주제별 인터넷 길라잡이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발간된 「다양한 보육활동을 위한 인터넷 길라잡이」는 보육현장에서 어린이들과 교사가 주제별 자료탐색을 하고자 할 때 평가준거를 특별히 고려하여 찾아야하는 시간과 노력을 다소나마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보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인터넷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자재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구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어린이들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인터넷 멀티 학습기를 설치하였다. 컴퓨터와 대형모니터 주조정기와 서버터미널을 이용하여 8명의 어린이가 동시에 정보를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활용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환경제공에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넷사용에 따르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교사는 적절한 도움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이 가능한가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사례가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례는 기존의 교사와 책, 비디오등의 정보자원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는 과정과 어린이들이 직접 인터넷을 활용해서 흥미롭게 진행되는 상황을 소개하여야 한다.

II. 주제선정 배경 및 전개과정

1. 주제선정 과정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의 하나로 근린공원(손기정공원)안에 설치된 어린이정보도서관 회원으로 7세 유아 전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매주 1회 유아들은 대출증을 가지고 가서 읽어보고 싶은 책을 1권~3권씩 스스로 선택하여 빌려오게 된다.

대출한 책은 원내에서 1주일간 자유선택활동이나 점식식사후 개인별로 도서영역활동에서 모든 유아가 돌려가며 읽게 된다.

11월 1주경에 도서대출을 하던 날을 중심으로 공룡과 관련된 도서를 선택하자 책을 돌려서 보던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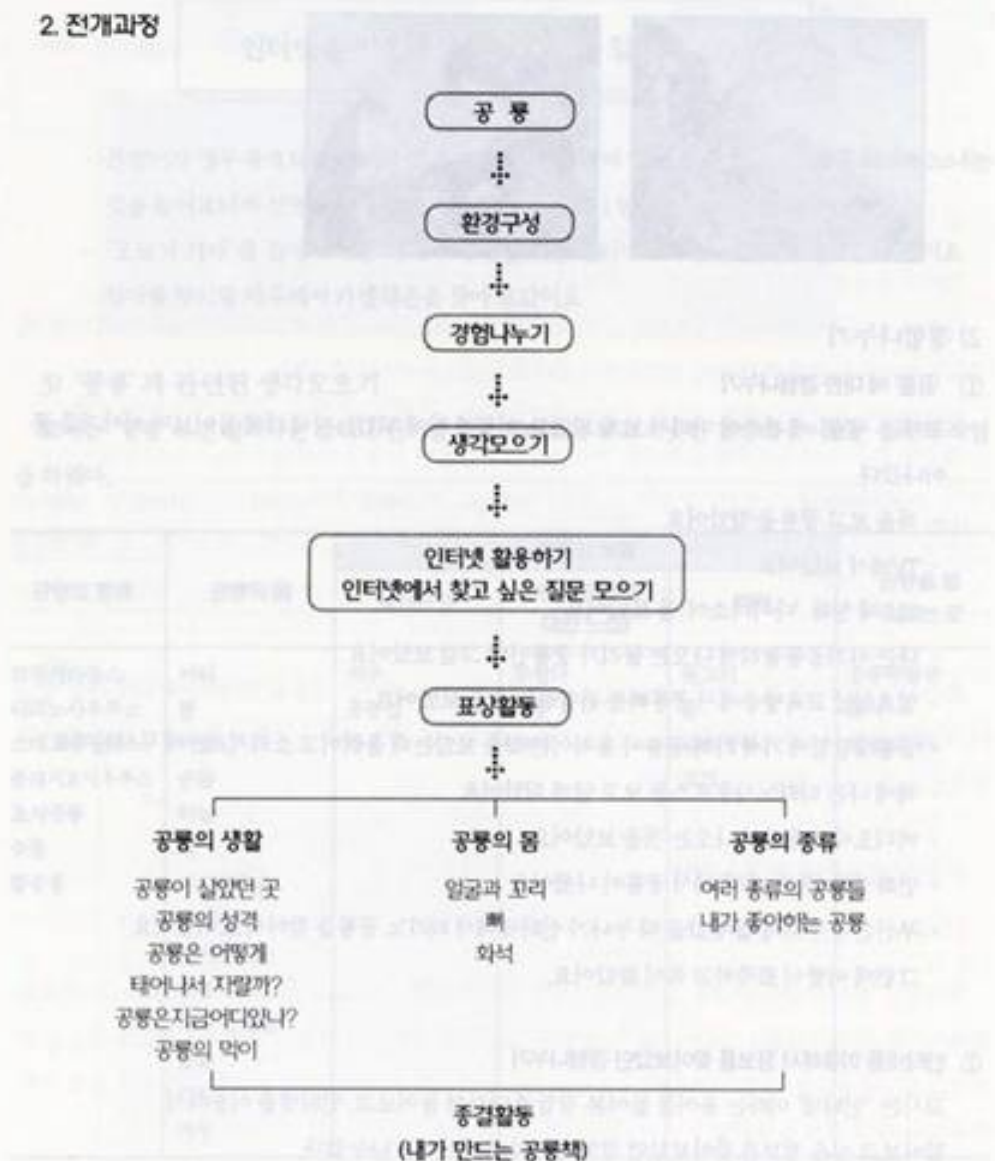
아들이 공룡에 관한 관심을 보이게 되어 '공룡'을 주제로 활동하게 되었다.

'공룡'에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를 유아들과 이야기한 결과 공룡에 대한 책, 모형, 사진자료를 집에서 가져와서 활동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제활동을 전개 할 때마다 인터넷을 자주 활용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유아들은 책보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하여 주제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적합한 사이트를 찾아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인터넷 길라잡이] 책을 유아들에게 소개하고 이 책에서 주제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2. 전개과정



II. 진행과정

1. 도입활동

1) 환경구성

공룡과 관련된 자료를 각 가정에서 보내줄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공룡과 관련된 사진·모형을 전시하고 관련도서는 도서관출판활동에서 빌려온 책과 유아들이 집에서 가져온 책등을 도서영역에 둔다. '공룡'과 관련된 사이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터넷 길라잡이를 유아들에게 소개한다.

환경구성 사진자료



2) 경험나누기

① '공룡'에 대한 경험나누기

교사는 '공룡'에 관하여 어디서 보게 되었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물어보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 책을 보고 공룡을 알았어요
- TV에서 보았어요
- 6살 때 영화 '다이너소어'를 보았어요
- 나는 아기공룡 둘리에 나오는 둘리가 공룡인데 그걸 보았어요
- 일요일날 교육방송에서 공룡뼈를 관찰하는 것을 보았어요
- 공룡대탐험에 가서 진짜 공룡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는데 움직이고 소리지르는데 무서웠어요
- 책에 나온 티라노사우루스를 보고 알게 되었어요
- 비디오에서 공룡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 만화영화 '톰과 제리'에서 공룡이 나왔어요
- 부산친척 누나네 집에 갔을 때 누나가 인터넷에서 티라노 공룡을 찾아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빨이 뾰족하고 목이 짧았어요.

②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를 찾아보았던 경험나누기

교사는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경험에 대하여 물어보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알아보고 싶은 정보를 찾아보았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터넷'이라는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나요?

- 형이 말해줬어요
- 엄마·아빠가 저녁에 신문보다가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어요
- 아빠가 인터넷에 들어간다는 말을 자주해요
- 친구들이 '오늘의 기자'로 새소식을 가져왔을 때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찾았다고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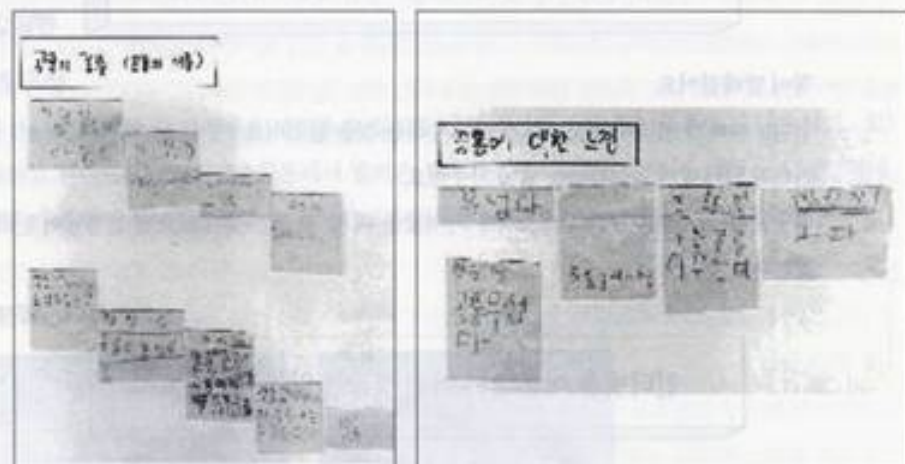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보았나요?

- 선생님이 앵무새에 대해서 조사해 온 것을 발표했을 때 앵무새가 어떻게 소리를 따라하느냐는 것을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어렵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라고 했어요
- '오늘의 기자'를 집에서 해올 때 경주에 대한 것을 인터넷에서 엄마랑 찾아서 조사해 왔어요
- 엄마랑 형이랑 야후에서 카멜레온을 찾아 보았어요

3) '공룡'과 관련된 생각모으기

교사는 '공룡'하면 생각나는 말이나 단어를 글로 적어보게 하고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는 유목화 작업을 하였다.

공룡의 종류	공룡의 몸	공룡의 생활			공룡을 볼 수 있는 곳
		살았던 곳	성격(공룡에 대한 느낌)	먹이	
트라케라톱스	머리	지구	무섭다	물고기	공룡박물관
티라노사우루스	팔	공룡집	싸움	물	화석
스테고사우루스	이빨	땅	크다	같은 공룡	화성(우주)
플레지오사우루스	손톱			고기	
초식공룡	비늘				
수룡	뼈				
빨공룡	아기공룡은 귀엽다				
	눈이 무서운 공룡				
	목이 긴 공룡				
	발톱				
	큰입				
	피부				



4)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싶은 '공룡'에 관련된 질문 모으기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싶은 '공룡'과 관련된 질문을 써보게 하였다.

대부분의 유아들은 뿔과 이빨이 날카로운지, 뼈, 공룡과 사람, 공룡의 최후, 공룡의 먹이, 공룡이 아플 때, 공룡이 좋아하는 것들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싶은 내용의 선호를 살펴보았다.

내용	여러종류의 공룡	뿔과 이빨	뼈	공룡과 사람	공룡의 최후	공룡의 먹이	공룡의 병	공룡이 좋아하는 것
수	15	1	2	1	1	2	1	1

조사결과 여러종류의 공룡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싶다는 질문을 쓴 유아의 수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가장 흥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종류의 공룡 이름과 공룡의 특징을 인터넷에서 개별적으로 찾아보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3. 인터넷을 활용한 조사활동

1) 내가 알고 싶은 공룡들

유아들은 인터넷 길라잡이에 소개된 Site '가상 공룡 박물관' VR Dino(<http://www.vrdino.co.kr>)주소로 들어가기로 하고 개인별로 자신이 원하는 공룡의 이름을 찾아보고 그 공룡의 특징이나 생긴 모양등을 관찰하고 표상활동으로 연결하였다. 인터넷 길라잡이를 이용한 유아개별활동은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 까지 다음 표와 같이 진행되었다.

일자	진행과정
11/19	가상박물관 VR Dino 주소로 찾아들어가기 VR Dino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 보기
11/20~11/21	가상 박물관 VR Dino에 유아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원하는 내용을 클릭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11/21~11/27	원하는 공룡의 자료를 찾아보고, 프린터기에 인쇄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표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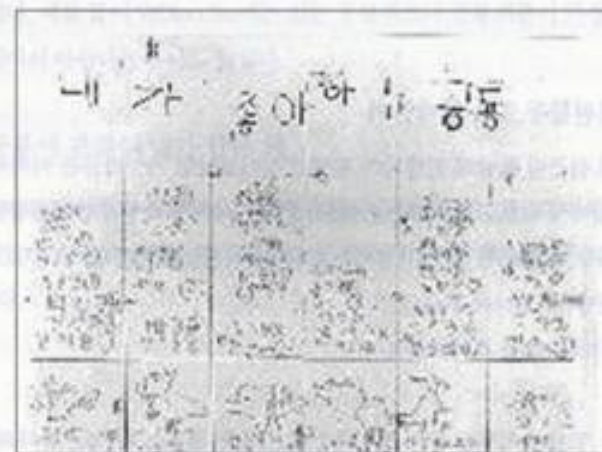
인터넷활동 - 어린이들이 직접활동하는 모습



2) 내가 좋아하는 공룡 그래프 만들기

가상박물관 VR Dino에서 찾아본 공룡의 특성이나 생긴새등에 대하여 표상활동을 마치고 각 유아들이 좋아하는 공룡을 선정했다. 그 결과 테라노돈, 스티라코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사우로로푸스, 에다포사우루스등 6종류 공룡의 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유아들의 선호도를 표시하는 방법은 가장 좋아할 때를 1번으로 해서 각 유아들이 좋아하는 공룡을 살펴보았다.

그래프 자료 및 사진



3)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공룡분류하기

유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공룡이 먹는 음식을 생각해보고 육식과 초식공룡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여 육식공룡과 초식공룡을 분류해보았다.

4) 대처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공룡은 어떻게 자기의 몸을 지킬 수 있나요?

내가 만약 공룡이라면 나는 어떻게 나의 몸을 지킬 수 있나요?

공룡은 어떻게 자기 몸을 지키나?	유아어답	나는 어떻게 내 몸을 지키나?
머리에 난 뿔	병옥	어지럽게 만든다
날카로운 손톱/동엽질의 가시	민정	울음소리를 크게 낸다
갈고리 발톱과 손톱	선영	달로 해결해 본다
꼬리	화수	손톱으로 할린다
날카로운 이빨	태호	발차기
단단한 머리	경재	발 걸어서 넘어뜨린다.
뱀/칼같은 엄지손톱	희원	주먹쥐어서 공격준비
동엽질	정남	달리기로 도망간다.
매치기	선희	꼬집는다
커다란 입	난영	무서운 표정

공룡의 성격을 이해한 유아들은 공룡이 자기 몸을 지키는 대처방법과 내가 만약공룡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함께 생각했다. 이 활동은 인터넷을 활용한 활동으로 공룡의 특성을 파악한 후에 전개된 활동이다.

4. 마무리 활동

1) 관련활동을 가정과의 지원활동으로 연계하기

인터넷의 활용과 '공룡' 주제의 접근이 활발히 진행되어 원에서 찾아보았던 가상박물관 이외에도 야후에서 공룡을 찾는 방법등을 가정에서 해보고 발표하는 유아도 있었다. 따라서 가정과의 지원활동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가정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에는 2가지의 지원을 요청했다.

- ① 가족과 함께 인터넷에서 '공룡'을 조사해 보세요
- ② 공룡에 관한 새로운 사(인터넷주소)를 적어보세요

가정의 지원활동에서는 부모나 형제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정용 pc가 없는 유아의 (전체

21명중 12명은 가정용 pc가 없음) 경우는 엄마와 함께 관내 동사무소에 설치된 복지문화센터의 컴퓨터를 이용한 유아도 있었고, 컴퓨터대신 책에서 정보를 조사한 유아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공룡과 인터넷 활용활동에 높은 흥미를 나타냈다.

가정에서 지원한 공룡관련 Site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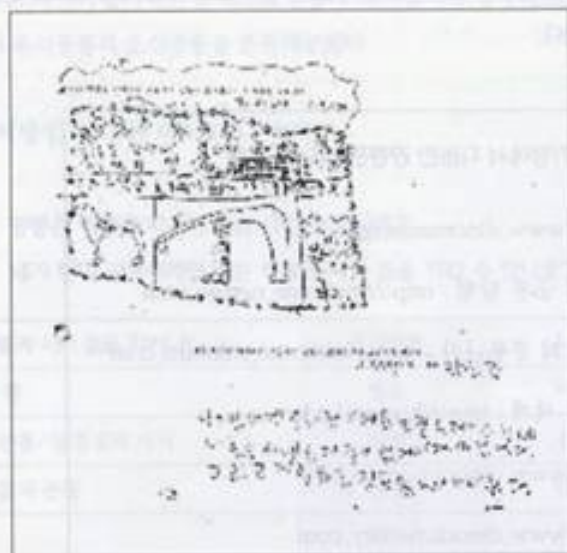
- <http://www.dinomania.rg.ro>
- 신규의 공룡 탐험 : <http://myhome.netsgo.com>
- 수진이의 공룡나라 : <http://myhome.shinbiro.com>
- 공룡의 세계 : <http://his.etri.ke.kr>
- <http://www.dinooption.co.kr>
- <http://www.dinodictionary.com>
- <http://www.teddydino.com>
- <http://www.netdaily.net/jihoon>
- <http://www.handong.edu/html>

2) 인터넷 이용하여 공룡을 조사하면서 느낀 생각 모으기

- ① 유아들은 가상 박물관 VrDino Site에서는 왓! 서울에 공룡이, 공룡퀴즈, 공룡퍼즐게임과 마우스를 움직여서 공룡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작하는 활동을 좋아했다.
- ② 인터넷 길라잡이에서 안내한 Site와 가정지원활동으로 찾아온 Site와의 차이를 비교하는 유아도 있었다. 예를 들어 VrDino Site에는 있는 공룡퀴즈나 공룡퍼즐이 가정지원활동으로 조사해온 Site에는 없어서 아쉽다는 유아도 있었다.

3) 공룡에 관하여 내가 만든 책

공룡에 관련된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나서 어린이들은 공룡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친구들과 돌려서 읽어보기로 하고 공룡이야기책을 만들었다.



III. 인터넷을 활용한 '공통' 활동을 마치며

인터넷을 활용한 주제 접근 활동은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동안 실시되었다. 인터넷 활용이 주제활동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기에는 어린이들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교사가 주도해서 site를 찾고 설명하던 형태에서 어린이가 주도해서 site를 찾아보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교사가 길잡이 역할을 한 결과 2주간 동안 어린이들은 인터넷 site의 이름과 공통에 관한 관심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또한 가정에서도 인터넷 활용을 하고 싶다는 의사표현과 함께 인터넷을 가정에서 사용한 후의 정보를 어린이집에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인터넷을 활용한 주제접근활동을 실행한 결과 적합한 site를 찾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덜어주어 현장교사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안전성있는 평가준거를 갖춘 site에 대한 소개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길라잡이」 책자가 이번 주제접근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7세반(지혜반)교실영역에 비치한 길라잡이 책을 보고 인터넷site를 찾아 보려는 유아의 모습을 보며 반가움을 느낀다.

또한 가상세계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유아들의 실생활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튼튼이 공부방의 남산골 한옥 마을 방문기

나물 사다가 커다란 그릇에 비벼 함께 떠먹고 - 비위생적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참 좋아하다군요. - 2시 30분쯤 튼튼이를 출발해 전철을 탔지요. 철도 파업 때문에 걱정을 하며 갔는데 생각처럼 붐비진 않더군요. 도착하니 대보름 행사를 연습하고 있더군요. 본 행사는 5시에 시작해서 7시 45분에 끝나는 거였어요. 북청사자놀음, 살풀이, 북의 율림, 소원 촛불 기원, 12금줄 점화, 달집 점화, 달노래, 북과 춤의 어울림, 남도민요와 뗏목이. 그 순서들을 연습하는 중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소원을 적어 달집. 달집은 음력 정월 대보름 날 농악대와 함께 망우리를 돌리며 달맞이를 할 때 주위를 밝게 하기 위해 대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길, 술가지, 땀감 등으로 덮고 달이 뜨는 동쪽에 문을 내서 만든 것을 달집이라 한다네요. 달집 속에는 짚으로 달을 만들어 걸고 달이 뜰 때 풍물을 치며 태우는데 이것이 고루 잘 타면 풍년이 들것으로 점진합니다.

또한 달집 속에 넣은 대나무가 타면서 터지는 소리에 마을의 악귀들이 달아난다고도 한대요. 달집을 태울 때 남보다 먼저 불을 지르거나 형질을 달면 아이를 잘 낳고, 논에서 태우면 농사가 잘된다고 하구요. 예 달고,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꽤 되더군요. 그때가 3시 30분쯤 되었을 텐데... 우리도 자리를 잡고 앉아 한 30분 구경을 하고, 요즘 튼튼이 아이들이 관악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타악기에 대해서도 일별리고 쳐다봤답니다.

행사 때나 봄직한 아주 커다란 북을 여러 명이 함께 치는 걸 듣는데 저절로 발이 움직이더군요.

그런 와중에 달집태우기 12명의 금줄을 맨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 그 줄에 불을 붙이는 것을 아이들이 했구요. 2차 점화는 달집에 유명인사들(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이 점화를 한다고 했어요. 불 할 12명의 꼬마 친구들이 예쁜 한복을 입고 예행 연습을 계속하는데(연습이라고 해봤자 걸어서 달집까지 가는 거였는데, 그것도 어른이 한 명씩 붙어서) 좀 안스럽더군요. 한번만 가보면 될 것을 5번 이상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겠다, 불쌍하다는 말이 튼튼이 아이들의 입에서 저절로 나오더군요. 왜 어른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사전 연습이 끝나 널뛰기를 하러 갔지요.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언니 둘이 널뛰기를 잡거(?)하는 바람에 - 뛰기는 잘 하더군요, 그리고 그 언니들은 한옥 마을에서 일하는 분들의 비호(?) 아래 그 특권을 마음껏 누렸지요. 보여주기 위한 널뛰기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공연장으로 돌아와 보니 앉을 자리가 없더군요. 결국 의자가 있는 곳의 담에 올라가 앉았지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개나리를 심어놓은 자리로 사람들이 들어오자 경비 아저씨는 계속 소리를 지르고 - 북청 사자 놀음 공연을 하는데 출연자 소리보다 경비 아저씨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곳이었거든요. 날

씨는 점점 추워지고, 사회자는 무슨 말이 그리 많은지...

계속 있어야하나, 가야하나를 고민하다가 소원을 적었으니 달집태우기는 봐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버텼지요. 중간중간 눈발 쪼르러지는 어른들이 참 많더군요. 너무 이기적으로만 변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지요. 아이들에게 무어라 이야기하기가 민망하게...

버틴 보람은 있었습니다. 달집에 불을 붙이는 순간 한 아이가 '속이 다 시원해진다'며 좋아하더군요. 불가루(?)가 날리는 모습은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곤 수타 자장면을 먹으러 갔지요. 한번 갔었다고 일요일 답사(?)에 오지 않았던 두 아이에게 자장면이 아주 맛있으며, 양은 적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결국 추가로 만두도 시키고.

1호선을 타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 생각되어 3호선과 7호선을 타고 남구로까지 왔습니다. 4호선을 타고 오다가 7호선을 갈아탔으면 한정거장 더 가깝다며 3호선을 선택한 것을 질책(?)하는 아이의 이야기에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로 응수를 하면서... 그리곤 짧지만 버스로 5정거장의 거리를 걸어서 왔지요. 아주 즐겁게, 밤 마실 다니는 기분으로.

도착하니 9시 30분이 넘었지만 피곤한 줄 모르고 또 놀더군요. 공부방에서 MT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일찍 잠들었어요. 하긴 그것도 거의 반 강제로 누워있으라고 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때가 11시가 넘어서였지요.

그리고 오늘 아침 7시가 되니 어김없이 일어나더군요. 피곤해서 좀 늦게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후가 되니 또 나가자네요. 결국 여의도에 가서 연날리기를 했어요. 오늘 바람이 불어선지 아주 잘 날리더군요.

내일은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 한마당에 갈 거랍니다.

전에는 아이들과 바깥 나들이를 갈 때도 항상 고민이 어다를 가야하나였어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죠. 가야 할 곳을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지요. 아이들이 정하지 않으면 만나간다고 협박도 해가며...

인터넷을 이용해 알아오더군요.(초등학생이니까 가능한 거지만)

가는 방법도 알아오고, 차비만 주면 알아서 내릴 곳에서 내려 길도 찾아가더라구요. 난 그냥 뒤에서 따라다니기만 하고.

자발성에 기초한 학습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껴감은 느낄 수 있었답니다.

요즘 전 敎育이란 단어 대신 學育이란 단어를 쓰고 싶어져요.

이화 어린이집의 신입아동 적응 사례

이은영, 방원미 · 서울, 이화어린이집

1. 목적

양아들이 집과는 낯선 공간, 수많은 아이들과 낯선 성인들, 현란한 놀잇감이 있는 새로운 가구와 많은 방들, 처음으로 듣는 많은 시끌벅적한 소음들, 자유롭지 못한 여러 가지 규칙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보다 적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계획된 프로그램을 한다.

2. 프로그램 진행사항

1. 교사의 역할

- 1) 교사는 원아의 나이, 기질, 양육환경, 건강 등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적응프로그램을 적용한다.
- 2) 부모가 원의 첫 방문 시, 원의 프로그램과 교사를 소개할 시간을 갖고 오리엔테이션이나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어린이집과 원아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교환한다.
- 3) 부모와 파트너십 형성하기로 교사와 부모는 서로에 대해 알고 배울만한 시간을 갖고 서로 사귀면서 아이라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 4) 적응기간 동안 부모 역할에 대해 안내하기로 다음과 같다.
 - 첫 방문 시 함께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면서 긴장감을 풀어주기
 - 헤어질 때 부모가 아이에게 '인사하도록 알려주며 부모의 태도에 대해 격려하기
 - 하원 시 혼란스러워 하는 아이를 이해하도록 부모에게 도움말 주기
 - 귀가 후 아이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방법 제안하기
- 5) 환경의 구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안락한 공간 구성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과 비슷한 공간을 마련하고 원아의 담요나 폭신한 인형 배개 등을 가져오게 하거나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긴장을 완화시켜 준다.
 - 적절한 놀잇감과 물리적 환경제공으로 신체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높이의 기구를 개방적으로 잘 보이도록 배치하며, 놀잇감은 원아의 신체적, 지적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여 스트레스를 주지 않게 한다.

- 적응 원아의 가족사진을 준비 원아의 눈높이에 붙여 가족 사진을 함께 하며 지금은 부모가 없지만, 곧 만날 수 있고 함께라는 생각을 심어 준다.
- 적응을 위한 특별한 놀이영역(역할놀이 영역) 마련으로 분리감에 도움이 되는 놀이 환경을 마련해 준다. ex) 까꿍놀이, 전화기, 변상자 이용으로 집꾸미기 등

II. 부모와 함께 하는 적응 프로그램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1주 (3~4일정도)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

- 오전간식, 실내놀이(보호자가 꼭 참여)
- 눈을 마주치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 교사얼굴 익히기, 까꿍놀이, 소리나는 장난감, 거울보고 이야기하기, 전화놀이, 비누방울놀이 등
- 실내놀이 환경에 익숙해지기

2주 (4~5일정도)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 오전간식, 실내놀이, 실외놀이(보호자가 꼭 참여)
- 실외놀이시 장소이동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한다.
- 실외환경에 익숙해지게 한다.

3주 (5일정도)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 오전간식, 실내외 놀이, 점심식사
- 점심식사시 처음부터 혼자 먹도록 강요하기보다는 탁자의 제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만 지도한다.

4주 (5일정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 오전 간식, 실내외 놀이, 점심, 낮잠
- 처음으로 낮선 환경에서 잠을 자기 어려운 일이므로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거나,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한다.

주의할 점

- 1~2주에는 부모가 꼭 참석하게 하고, 3~4주는 원 생활에 유난히 적응하지 못하거나, 떨어지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의 경우만 부모를 참석케 한다.
- 정규적인 생활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외부의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감기 등 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 많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어 서로 부딪히기 쉬우므로 되도록 덜 부딪힐 수 있게 놀잇감을 여러 벌 준비하여 싸우지 않게 한다.
- 아이와 부모는 인원수에 따라 시간 터울을 둘 수 있다.

3. 적응 프로그램의 평가와 문제점 및 개선점

1) 평가

1. 적응당시 시간대를 달리해 적응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일손은 바빴다.
이유로는 보호자와 함께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영아가 있었고, 아이들의 기본 성향과 놀이의 형태를 관찰하는 부분이다.
하나, 보다 쉽게 영아에게 접근할 수 있고, 아이에 대한 정보를 부모로부터 들어 정보의 망이 넓어졌다.
입소 시 10명의 정원 인원을 다 채우지 않고 얼마간의 기간을 두면서 입소원아를 받았는데 후에 입소한 영아는 처음 입소한 영아보다 놀이 시작이 더 순조로웠고 적응도도 빠른 편이었다. 여기에는 처음 입소한 영아들은 교사의 관심이 분산되었던 반면 학기 중 입소한 영아들은 교사들의 집중된 관심이 이유가 된 것 같다.
2. 입소 첫날부터 보호자를 동반하여 1~2주일 가량 아이와 함께 반을 탐색하고 놀잇감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보호자의 보호 하에 충분히 주변환경을 탐색하고 난 후 분리가 되자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은 줄어든 것 같다.
부모님 역시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 했다.
3. 적응기간과 프로그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도가 낮은 영아들은 그 후까지도 아이의 상태에 맞춰 시간프로그램을 했고, 반대로 적응이 빠른 영아들은 계획했던 프로그램보다 앞당겨 프로그램을 하는 유동성과 융통성을 두었다.

2) 문제점

1. 적응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는 종종 교실에 오랫동안 머물다 가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간식을 달라는 보호자도 있었다.
2. 적응기간동안 동원시간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오시는 부모님들이 있었고, 반대로 하원 시간도 어겨가며 점심을 먹여 달라며 늦게 하원을 하는 등 적응기간동안 학부모의 이기가 많은 부분도 있었다.
3. 개월 수가 낮은 영아는 대집단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도가 낮았고, 개월수가 많은 영아 역시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다른 프로그램을 모색해 두어야 할 것 같다.
또한 낮은 개월 수의 영아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예를 들어 M이 기어다닐 무렵, 대부분 영아들이 기기를 모방했고, 기저귀 떼기를 한 영아를 마저 기저귀를 채워 달라며 퇴행을 보이기도 했다. M의 경우 허용되는 부분을 시기하는 영아들도 많았다.

3) 개선점 및 건의사항

1.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위해, 부모 교육으로 입소 전, 영아의 기질 등을 단순히 문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답임과 상담을 통해 서로의 정보 교환이 있었으면 한다. 이는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윤택

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전체 신입아동 오리엔테이션 시 단순히 문서로 받는 서약서 등 외에, 원 운영의 원칙 등을 한번 더 상기시켜 차후 발생하는 여러 문제(동·하원 문제, 응급시 대처 상황 등)를 미리 차단시켰으면 한다. 이후 반 별로 부모회 등을 갖는다면 반별의 특성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신입원이 적응기간동안 적응아동이 하원 한 후 오후시간을 활용해 부모와 함께 영아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교육받았으면 한다.
예를 들면 부모와 함께 하는 점보리의 활동을 이미 적응한 영아와 함께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 아동별 적응사례 및 일지

사례1

아름: Y(남아)

생년월일: 1999. 3. (24개월)

적용기간: 3월 2일 금요일 ~ 3월 20일 화요일

입소전 타인 보육경험: 2000년 10월 햇살반 입소

가족: 부모, 형(바다반)

건강상태: 양호

기질특성: 잘 적응하는 아이

Y의 행동특성

다른 아이들이 입소하기전 교사의 사랑을 혼자 받던 Y는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자 사랑을 내기도 하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며 우는 행동을 보였다.

부모의 특성

▷ 직업: 아배(토목설계), 엄마(영업-학습지)

▷ 아이에 대한 태도

엄마: 엄하게 대하는 편임, 말을 듣지 않을 때 매를 들기도 함

▷ 부모와의 애착관계

엄마와 자내는 시간이 더 많아 엄마만 따른다.

▷ 생활환경

경제적 어려움은 없다.

형이랑 자내는 시간이 많아 형이랑 장난감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적용상황 및 평가

혼자서 교사와 함께 온통 사랑을 받은 탓인지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친구들이 조금만 건드리거나 놀

아침을 뺏으면 교사를 바라보며 징징 우는 행동을 보였다.

전보다는 놀잇감을 뺏기지 않으려고 친구를 때리는 행동도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뺏기던 행동에서 방어적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Y는 교사가 다른 친구들을 안아주는 걸 샘내기도 하고 몹시 서운한 표정을 짓기도 하였다.

낮잠시간에는 교사가 우는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자신의 옆에 오지 않자 계속해서 눈을 감박거리며 몸을 움직이다가 교사가 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그제서야 잠이 들곤 했다.

또한 작년 햇살반 아이들이 나무반에 올라가 있고, 나무반 교사가 Y를 예뻐해 주자 나무반에 놀러간 Y는 햇살반에 오지 않으려 하였다.

하지만 점차 친구들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면서 친구에게 장난감을 양보하고 친구의 장을 찾아 주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3/2 (9:00 동원)

혼자 동원한 Y...

아침에 동원할 때는 울음을 보였지만 교실에 들어와서는 울음을 그치고 교실을 둘러보았다.

책보기 영역의 책을 꺼내 보고는 알 수 없는 말로 물어보기 시작한다.

동물 나라와 장난감 나라의 책 두 권만을 가지고 번갈아 보며 물어보고 교사가 다르게 대답을 하면 "아니야" 라고 반박한다.

또한 아침 내내 신이 나서 노래를 불러 대지만 아쉽게도 어떤 노래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Y는 신이 나서 돌아다니다가 가끔 교사를 붙렸는데 교사가 쳐다보지 않자 "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3/6 (9:00 동원)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지만 주로 혼자 놀이를 한다. 동요를 불러주자 노래도 부르며 발을 동동 굴러가며 신남을 표현한다. 친구들이 다 가고 나자 행동이 축소되고 말수도 적어진다.

3/10 (9:20 동원)

엄마와 함께 동원 후 놀이를 했는데 오늘은 소꿉영역에서 한참을 놀기도 하고 블록과 조작영역에서도 다양하게 놀이를 했다. 도서관에서는 늘 주로 보는 '장난감 나라' 책을 가져다 교사와 J의 엄마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고 관심 없는 듯 다른 놀이를 하면서도 시선은 자주 아이들을 향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하원을 한 후 오히려 놀이도 시들해 지고 교사 뒤만 따라 다니기도 했다.

점심은 바다반 형아들과 3층에서 먹었는데 열심히 몇 수저 막다가 교사가 떠 먹여 주자 조금 더 먹더니, 안 먹겠다고 하며 도리질을 하기도 했다.

양치 후 볼풀장에서 놀이를 하다가 나무반에서 비디오 시청 후 낮잠을 잤다.

3/12 (9:15 동원 / 6:10 하원)

Y는 E와 책보기를 한 후 블록영역에 혼자 들어가 블록을 갖고 놀기도 하고 자동차를 갖고 놀기도 했다. S의 색연필을 빼앗아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잠시 있다 다른 영역으로 가서 놀이를 했다. J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시늉을 하다가 Y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는데 몹시 서럽게 울기도 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입에 물고 편창을 하기도 해 주의를 받았다. 오후에 나무반에서 비디오 시청 후 하원을 했다.

3/13 (9:00 동원 / 5:50 하원)

K가 몹시 울자 동원 후 내내 혼자 놀이를 했다. 친구들이 없는 영역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K 할머니가 오시면 Y는 할머니에게 매달리기도 하고 책을 가져다 물어 보기도 한다. C가 동원했을 때도 C의 엄마에게 책을 보이거나 안겨 있으려 하기도 하고 퍼즐을 하는 C에게 다가갈 옆에 앉아 지켜보기도 했다. 점심을 늘 요즘은 적게 먹는 편이고 식사를 하다가 놀이를 하거나 하는 편이라 주의를 받기도 하지만, 잘 안 듣기도 한다.

오늘은 기분이 좋은지 유난히 소릴 많이 지르기도 했고, 바깥놀이 시 즐거워하기도 했다.

늘 늦게까지 혼자 남을 경우 놀이보다는 교사 주위를 맴도는 편이다.

3/14 (9:20 동원 / 6:30 하원)

색종이를 갖고 종이비행기를 접어달라고 하며 종이비행기를 갖고 한참을 놀던 Y는 K로 인해 선생님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는지 B선생님 곁에서 떠나질 않고 주위에 뒹뒹하며 놀이를 했다. 동요tape에서 나오는 비행기노래를 부르며 놀이를 하다가 슬며시 자동차 영역에서 자동차를 갖고 놀기도 하고 미끄럼을 타기도 했다.

한번도 반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던 Y가 오늘은 웬일로 지붕차를 타고 있는데 Z가 Y의 얼굴을 쥐어뜯자 Y는 Z의 얼굴에 따귀를 붙이더니 미안했는지 얼른 얼굴을 만져주기도 했다.

점심을 먹는 등 마는 등 조금만 먹고 나서는 바깥놀이를 잠시 했는데 즐거웠는지 한참을 쌍둥이차를 한 후 교실로 들어와 낮잠도 금새 들었다.

3/15 (9:20 동원 / 11:00 하원)

동원시부터 열이 많은 상태로 동원을 한 Y는 간식도 먹지 못하고 누워 있다가 간호사업무로 가서 열을 check했는데 39.7도였다가 40.3도로 열이 오르고 해서 좌약과 알콜 마사지를 받았는데 너무 많이 울어 알콜 마사지를 다 마치지 못했다. 이온음료를 다 먹고는 자리에 누워 졸기도 하다가 힘이든지 간간이 뒤척거리며 깨기도 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11시경 하원을 했다.

3/16 (9:00 동원 / 6:00 하원)

어제보다 몸이 좋아졌는지 즐겁게 동원을 한 Y는 소꿉방에서 "나비야"를 부르며 혼자서 놀이를 했다. Y는 "나비야" 발음이 안되어 (아아아, 오아아)등으로 발음해 노래를 한다.

한자씩 발음을 시키면 "나비야"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나비야" 노래만 시키면 다시 "오아아 아아아"로 바뀐다. 풍선을 뺏기지 않으려고 울기도 했는데 전처럼 무조건 뺏겨 울거나 하는 일은 적어지고 자신이 보기도 아이들이 어려 보이는지 이젠 제법 공격적(?)인 면을 보이기도 한다.

3/17 (9:00 동원)

새로 사온 유모차를 밀며 놀이를 하던 중 Y가 유모차를 뺏으려고 하자 교사를 쳐다보며 칭얼댄다. 교사가 같이 밀라고 하자 Y가 옆으로 가며 유모차 손잡이의 한쪽 부분을 잡고 "같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자 J가 옆으로 와 함께 잡고 민다.

3/19 (9:10 동원, 4:30 하원)

놀이를 하다 J가 장난감을 빼앗자 교사를 쳐다보며 칭얼댄다. 좀 잠잠하다가 아이들이 건들기만 하면 운다. 시간이 지나 차차 나아졌지만 아이들이 놀잇감을 빼앗을 때마다 칭얼댄다. "싫어, 썩!"라고 말하라고 하자 그때만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시 칭얼댄다.

3/20 (9:35 동원, 5:00 하원)

신발을 벗은 후 장의 위치를 헛갈려 하다 교사의 도움으로 장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발을 올려놓는다. 들어가 가디건을 벗겨 주려고 하자 싫다고 고개를 젖는다. Y에게 "가디건을 입고 있으면 더우니까 벗자"라고 이야기해주자 옷을 벗는다.

오후 시간에 혼자 남아 모든 관심을 받던 Y는 오전시간에 아이들이 많아 교사의 관심을 받지 못하자 장난도 치지 않고 혼자 조작영역에서 퍼즐을 맞추고 있다.

오후 점심을 먹고 불꽃놀이 후 나무반에 다녀온 Y는 다시 나무반에 가고 싶어인지 오전 시간의 무관심 때문인지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리에 눕는다. 교사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손을 쳐낸다. Y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음료수를 주자 그제서야 말도 하고 누워 잠을 잔다.

적용결과 및 새로운 과제

3월 말 현재 Y는 아직 아이들에게 적응하지 못하여 혼자 책을 보거나 퍼즐을 맞추는 일이 많다. 또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장난감을 뺏기고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Y를 좋아하는 C와 함께 소꿉방에 들어가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례2

이름: L(남아)

생년월일: 1999. 9. (17개월)

적용기간: 3월 7일 수요일 ~ 현재까지 낮잠시도를 못함

입소전 타인 보육경험: 없음

가족: 부모, 조부

건강상태: 양호

기질특성: 잠을 자지 않는 아이

L의 행동특성

다른 아이들의 장난감을 빼앗으며 놀이를 하였고 빼앗는 과정에서 친구들을 물기도 하였다.

엄마의 가솔로 한동안 등원을 하지 않은 L은 예전과 다르게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 하였고 자신의 행동에 제지를 받으면 드러누워 악을 쓰며 우는 행동을 보였다.

부모의 특성

▷ 직업: 아버지(요식업), 어머니(전업주부)

▷ 아이에 대한 태도

입소 전에는 엄마는 아이가 더럽거나 방을 어지르면 싫어하고 화를 많이 냈으나 요즘은 아이의 뜻을 받아주고 항상 사랑한다고 얘기해 준다.

▷ 부모와의 애착관계

엄마를 무서워하였으나 사랑으로 감싸주자 무서워하지 않고 어리광도 많이 부림

▷ 생활환경

엄마가 중풍으로 앓고 계신 시아버님의 병간호를 맡고 있어 많이 지쳐있다.

아이가 대·소변통을 만지는 일이 종종 있어 화를 내고 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엄마가 그 일로 인하여 자책하고 원망을 하여 지금은 사랑으로 감싸주고 있다.

그래서 아이가 많이 밝아지고 밤에 나가 놀이하는 것을 좋아함

적응상황 및 평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중풍을 앓고 계신 할아버지가 계신다. 엄마는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모두 받아내는 일에 지친 상태와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 아이에게 가끔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잦은 편이다. L은 개월 수에 비해 인지적 발달이 조금 늦은 편인데, L이 탐색하고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엄마가 무조건 차단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놀이시 무조건 다른 아이들의 장난감을 빼앗고 자신의 놀잇감을 뺏기거나 자기가 노는 놀이 영역에 다른 아이들이 있으면 무는 일이 잦은 편이다.

그런 대로 적응을 잘 해나가던 L은 이틀 동안의 엄마의 무단가솔로 인해 좀처럼 엄마 곁을 떠나려하

지 않고 엄마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낮잠시도도 해보았으나, 울며 교사 등에만 업혀 있으려고 했고 엄마가 와서 재우려 했으나 실패로 끝나 하원을 했다.

엄마와 상의 끝에 아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엄마가 일찍 하원 시키겠다고 해 현재 점심식사 후 하원을 하고 있다.

3/7 (10:30 등원/ 11:30 하원) 등원 첫날

엄마와 함께 첫 등원한 L은 많은 자동차를 보자 자신의 주변에 원을 그리 듯 둘러놓고 놀이를 하였다. 엄마가 인사를 하며 가도 쳐다보지 않고 자동차를 가지고 놀던 L은 K가 집에 가자 잠시 엄마를 찾다가 다시 놀이를 하였다. 책상과 병병이 위에 올라가 뛰어 내리며 놀이를 하였고 교사가 제지를 하면 칭얼대다가 다시 반복하였다. 또한 다른 아이들의 장난감을 뺏기도 하였는데 뺏어지지 않으면 귀를 꼬집거나 물기도 하였다.

3/8 (10:00 등원/ 11:30 하원)

엄마와 등원하여 인사도 하지 않고 자동차 놀이를 한다. 줄린 지 계속해서 하품을 했고(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났다고 함) 책상에 올라가기, 장난감 빼앗기 등의 행동에 제지를 받자 칭얼대며 온다.

3/9 (10:00 등원/ 11:20 하원)

엄마와 현관에서 인사 후 혼자 교실로 들어와 놀이를 하였다. 한 40분쯤 지나 K가 집에 가자 칭얼대기 시작하였지만 다시 놀이를 하였다.

3/12 (10:00 등원/ 11:35 하원)

엄마와 등원 후 엄마가 간다고 해도 거들며보지 않고 놀이를 하던 L은 오늘도 자동차를 선호하며 놀이를 했다. 친구들이 가진 놀잇감은 무조건 뺏기도 하고 성취가 안될 경우 무조건 징징거리며 울기도 했다. 선생님의 눈치를 보면서, 세면장이나 화장실을 가기도 해 주의를 주었지만 자신이 갖고자 하는 물건을 못 가질시 무조건 징징대고 큰소리로 울기도 했다. 놀이가 1시간 가량 되자 무조건 울기로 일관하기도 했다.

자동차를 가지고 S와 J가 다투기도 했고, L은 책상에 못 올라 간 것 때문인지 엄마와 하원을 하면서 지붕자동차를 타고는 내려려 하지 않기도 했다.

3/13 (10:00 등원/ 11:35 하원)

어제보다 징징거리는 횟수는 줄었는데 아직 교사의 말을 못 알아듣는 전무한 편이라 항상 눈여겨 봐야만 하는 편이다. 친구 것을 훔치다니며 빼앗으려 하고 무조건 머리를 잡아뜯거나 물려고도 해 신경을 곤두서야 하는 편이다. S와 J랑 자주 다투는 편이고 두 친구와는 신체적으로도 많이 작은 편이라 밀리기도 하지만, 지지 않으려는지 무조건 얼굴을 잡아뜯고 물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편이다.

미끄럼틀에 올라서도 친구만 올라오면 밀치기도 하고 얼굴, 머리를 뜯어 올리곤 했다.

책상에 자주 오르는 편이라 내려오라고 하면서 교사가 내려면 울면서 때를 부리고, 자신이 성취하지

못한 부분은 징징거리며 울고 돌아다니기도 한다. 엄마는 기분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은 주라고 하며 부탁을 했는데, 단체생활이라 혼자서 독차지하면서 놀이를 하는 건 힘이 든다고 말씀드렸더니, 한참을 교실에서 서성이며 아이가 놀이를 하는 걸 지켜보다가 섰다.
L은 등원하자마자 거의 엄마보다는 놀잇감에 더 흥미를 보이며 교실을 돌아다니는 편이다.

3/14 (10:00 등원 / 11:35 하원)

엄마와 등원을 한 L은 어제보다는 안정적이지만 교사가 따라 다니며 눈여겨 봐야했다. 겨우 울음을 그치고 놀이를 막 시작한 K의 머리를 잡아 당겨 올리기도 하고 미끄럼에 다른 친구가 올라오면 무조건 얼굴을 쥐어뜯거나 머리를 잡아 당겨 올리기도 했다.
미끄럼이 재미있었는지 엉덩방아를 찧으며 떨어지자 까르륵 웃더니 다시 또 타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공놀이를 아이들과 재미있게 하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를 하는 E와 J를 따라 종이를 뺏기도 해 친구들을 올리기도 했다.
어제보다 징징거리는 횟수는 줄었으나, 친구들을 때리는 건 여전히 편이고 교사상 문을 열고 하는 편이라 신장을 써야 했다.
엄마가 들어오자 좋아하며 하원을 하려다 말고 지붕차에 타고 있는 Y를 또 건드려 얼굴을 한 대 맞아 울기도 했다.

3/15 (9:35 등원 / 11:30 하원)

등원 후 또 친구들이 가진 것을 달라고 울기도 하고 머리를 때리기도 한 L은 간식에 관심도 없고 교사가 먹으라고 하자 K 머리를 한 대 때리기도 했다.
자동차놀이를 혼자서 열심히 하다가 조작방으로 가 파즐을 모두 책상에 쏟아내고는 다시 지붕차에 탄 J를 내리라며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교사가 주의를 주면 '애애'거리며 잠시 울다가 다시 관심거리가 생기자 울음을 그치며 놀이를 했다.
하원 전 30분 가장 볼풀장에서 놀이를 했는데 볼풀을 굉장히 무서워하며 들어가지 않으려고 울기도 했다. 나중에 교사와 함께 들어가 한참을 운 뒤 관심을 갖기도 했다.

3/16 (9:30 등원 / 11:30 하원)

막무가내의 L은 오늘 등원을 해 S의 손가락을 물고 J를 물기도 했다.
자동차놀이를 하며 지낸 L은 S가 가진 자동차를 뺏으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S의 손가락을 물어 버렸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자 상처 없이 기라앉기는 했는데, L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다시 혼이 난 L은 자동차 놀이를 하다가 지붕차에 탄 J를 끌어내리려 했는데 힘이 딸린 지 무조건 입으로 물려고 들이대 혼이 나기도 했다.
처음 등원 때보다는 징징거리는 건 많이 없어졌으나 친구들을 물거나 때리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3/19 (11:00 등원 / 12:00 하원)

볼풀장에 넣어주자 울기 시작한다. 움직이면 몸이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며 무서워서 밖으로 빼주

었다. L을 제외한 다른 아이들을 볼풀장 안으로 넣고 놀이를 하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L이 다시 울기 시작한다. 엄마가 와서 볼풀장에 넣어주니 울지 않고 놀이를 한다. 식사 후 다시 볼풀장에 넣어주니 울지 않고 놀이를 한다.

3/20 (9:25 등원 / 12:30 하원)

자동차를 탈 때 문 입구 반대편으로 힘들게 타서 문으로 내리기를 반복한다. 자동차를 타고 있는 J를 밀어내려다 힘으로 안 되자 3번이나 손가락을 깨문다. S아빠를 보자 가서 안기고 S아빠가 가져온 쪽으로 가서 나가려고 한다. 문이 뱅뱅이에 앉아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놀이를 하였다.

3/21 (10:20 등원 / 12:00 하원)

장난감을 뺏으려다 뺏지 못하자 E의 팔과 K의 어깨를 물어 멍이 들게 한다.

적응결과 및 새로운 과제

3월 말 현재 L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아침 등원시에는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낮잠자기를 시도하려고 하면 바닥에 드러누워 악을 쓰며 운다.

또한 행동에 제지를 당해도 울며 악을 쓴다.

아직까지 낮잠자기 시도는 실패하였고 점심만 먹고 하원을 한다.

엄마와 의논하여 적응기간을 늘리기로 하였다.

5. 부록

1) 적응에 접근하는 교사행동의 모형

2) 부모를 위한 안내문

3) 햇살반 신입아동 적응 사례

4) 가정환경조사서

5) 기본생활습관조서지

적응에 접근하는 교사 행동의 모형

	부 모	아동의 예상 반응	교 사
1일	(짧게 방문하기) - 영아와 함께 인사하기	- 부모의 영역에서 놀이할 탐색 - 약 1시간 방문	(거리감 두기) - 인사 - 영아관찰 (부모에게 적응역할 소개하기) - 부모와 이야기하기
2일	- 교사, 아동과 함께 놀이하기 - 교사와 아동이 친해지도록 힘조 (교사와 파트너십 형성) - 교사와 영아에 대해 이야기하기	- 장난감을 통한 주변인과의 접촉 - 약 2-3시간	(간접적 접촉 시도) (실마리 읽기) - 영아와 인사 - 놀잇감 소개 - 함께 놀이하기 (부모와 파트너십 형성)
3-4일	(갈 헤어지기) - 영아와 인사하기 (영아와 특별한 시간 갖기)	- 울기 - 익숙한 장난감으로 안정하기 - 교사와 접촉하기 - 오전 프로그램에 참여	(직접적 접촉 시도) (영아 이해 및 표현) - 안기/달래기 - 엄마와 인사시키기 - 안아주며 이야기 나누기
5-6일	- 영아와 인사하기 - 교사와 지속적인 관계 형성하기	- 울기 - 교사와 의사소통하기 - 일과에 적응하기 - 점심식사까지 하고 가기	(스킨십으로 접근하기) - 짧은 스킨십 제공하기 - 영아의 감정을 언어적 으로 표현 해주기 (환경 소개하기) - 교실, 원에 대해 소개하기
7-8일	(적응행동 격려) - 영아의 적응상태를 보아 시간을 조절함.	- 일과에 적응하기 - 친구와 사귀기 - 낮잠 후 귀가	- 일과에 적응시키기 - 친구, 장난감에 대해 소개하기 - 아동의 적응행동에 대해 칭찬 하기
9-10 일		- 일과에 적응하기 - 친구와 사귀기	(적응행동 격려) - 아동의 적응행동에 대해 칭찬 하기 - 일과의 진행
적응후	(지속적인 애정표현)	- 일과에 적응하기 - 친구와 사귀기	(영아가 또래와 사귀도록 돕기) - 관찰을 통해 영아의 상태 체크

부모를 위한 안내문

햇살반 적응 프로그램

1. 목적

- 1) 영아가 보호자와의 격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안전하고 편리한 장소로 느낀다.
- 2)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
- 3) 적응기간을 통해 이 후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에 더욱더 잘 적응한다.

2. 운영원칙

- 1) 영아와 양육자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 2) 영아의 적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예: 점심, 낮잠)을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둔다.
- 3) 보육시간은 초기에 하루 1-4시간 정도에서 점진적으로 보육시간을 늘려간다.
- 4) 적응기간은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간 정도 걸리지만,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진행한다.

3. 내용

- 1) 어린이집은 어떤 곳일까?
- 2) 선생님 및 친구들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놀이하기
- 3) 어린이집에서의 식사(점심) 경험하기
- 4) 어린이집에서 편안한 낮잠자기

4. 일정

조		A 조	B 조
기간, 시간 및 활동	시간	오전(9:30-10:30)	오전(10:30-11:30)
	활동	주변환경탐색, 자유놀이	주변환경탐색, 자유놀이
첫째주 3/5-3/9	시간	오전(9:30-10:30)	오전(10:30-11:30)
	활동	주변환경탐색, 자유놀이	주변환경탐색, 자유놀이
둘째주 3/12-3/16	시간	오전(9:00-11:00)	오전(9:00-11:00)
	활동	주변환경탐색, 자유놀이	주변환경탐색, 자유놀이
셋째주 3/19-3/23	시간	오전(9:00-12:00)	오전(9:00-12:00)
	활동	자유놀이, 대집단활동, 점심	자유놀이, 대집단활동, 점심
넷째주 3/26-3/30	시간	하루종일	하루종일
	활동	어린이집 하루일과	어린이집 하루일과

*영아별 개인차를 고려해 시간을 조절합니다.

2001년 2월 일 이화어린이집

이화어린이집에서의 적응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본 어린이집에서는 초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응프로그램은 처음 입소한 영아들이 심리적·정서적 갈등 없이 원만하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응과정이 점진적인 과정이 되기 위해 적응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

부모-영아간의 상호작용이 주가 되며, 영아가 낯선 환경을 탐색하며 심리적 안정을 얻는 단계입니다. 영아가 2시간 정도 보육시설에 머무르며, 양육자가 이 기간동안에 매일 영아와 함께 머물면서 교사의 안내에 따라 영아에게 어린이집의 환경을 소개하여 줍니다.
영아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교사의 낯을 익히게 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 ❖

이 단계에서 영아는 친숙한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낯을 익혀 둔 교사나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보다 친밀해 집니다. 영아가 보육시설에 머무는 시간은 1단계보다 늘어 나갑니다. 영아가 어린이집에서의 일과리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아에게 점심식사나 낮잠자는 경험을 하게 하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즐거움을 주는 놀이를 주로 합니다.

3단계 ❖

보호자가 영아의 시야에서 사라지더라도 또래와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점진적으로 주양육자와의 분리를 시도하며,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심리적 안정감이 정착되어가는 시기입니다. 영아가 정해진 시간을 따르도록 하나, 영아의 상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이런 일을

1단계

- ❖ 영아에게 보육시설과 교사를 소개한다.
- ❖ 영아와 함께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2단계

- ❖ 대집단 활동에 참가 하거나 또래와 놀이하도록 도와주고, 영아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곁에 있다.

3단계

- ❖ 영아가 정해진 일과 시간을 따르도록 도와준다.
- ❖ 부모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경우를 시도해 본다.

영아가 어린이집에 처음 왔을 때

영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의 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해서 보육시설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
2. 보육시설의 문만 들어서면 그치지 않고 계속 운다.
3. 신체적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한다.
4. 또래와 어울리지 않고 시무룩하다.
5.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며 반응이 없다.
6. 보육시설에서는 잠을 자려하지 않는다.
7. 보육시설에서는 간식이나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8. 울음이 잦고 자주 칭얼댄다.
9. 밤에 자지 않고 울면서 깬다.
10. 새삼스럽게 젖병을 찾거나 손가락을 빨다.
11. 대소변을 가리던 영아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12. 집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위와 같은 현상들은 영아가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에 접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불안의 증세입니다. 이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해서 적응에 실패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작용으로 쉽게 결론지어서는 안됩니다. 그럴수록 부모는 더욱 영아적응지도에 적극 참여하고, 영아에게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세가 나타날 때는 잘 지켜보고 담당 교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1년 2월 일 이화어린이집

자녀에게 이화어린이집을 이렇게 소개해주세요.

영아가 어린이집에 처음 왔을 때 부모와 함께 어린이집을 둘러보고 부모가 구석구석 소개한다면, 아이는 어린이집을 더욱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이 하면 어떨까요.

부모는 자녀를 교실의 각 영역별로 데리고 다니며 놀이감을 소개하고 어린이집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임을 이야기합니다.



실내 놀이실

"여기는 뭐가 있나 보자. 이게 뭐까?(영아에게 생각할 기회를 준다) 크레파스가 있구나. 이것로 우리 00이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

"아! 여기는 인형이 있네. 이것로 뭐 하면서 놀까? 엄마랑 같이 놀까?"

"여기는 재미있는 동화책이 많이 있구나. 집에 없는 책도 많이 있네. 엄마가 읽어줄까?"

그 외 놀이감의 명칭을 물어보기도 하고 말해 주기도 하며 자녀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실외 놀이실

"아, 여기는 모래가 있네. 신나는 미끄럼도 있네, 조심해서 타야겠지?"



잠잘 때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00가 피곤하거나 잠이 오면 여기서 잠을 자도록 낮잠시간이 있네"



와장실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아 00이가 쉬나 용가를 하고 싶을 때 여기 와서 하면 되겠네. 여기는 손도 씻을 수 있겠다"

2001년 2월 일 이화어린이집

영아마다 다르게 적응합니다.

아이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각기 나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보는 이마다 순하다고 말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아주 민감하게 곤잘 우는 아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곤잘 다가가는 아이도 있고, 또 못 보던 사람이 있으면 금세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영아들은 이처럼 제각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각 영아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는 보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유형별 구체적인 특성과 부모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쉬운 영아

행동특성(잘 적응하는 영아)

- 규칙적인 수면과 음식섭취를 나타낸다.
- 새로운 음식을 쉽게 받아들인다.
-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적응한다.
- 새로운 일상생활, 새로운 놀이의 규칙에 빨리 적응한다.
- 순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보인다



부모의 역할

이 유형의 영아는 어린이집에 대체로 빨리 적응하고, 부적응적 행동을 적게 보인다. 그러나 자녀가 잘 적응한다고 해서 부모가 관심을 적게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럴 때 부모는 영아가 더욱 원만한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의 일들에 대해 대화를 자주 나누고, 지속적으로 관심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

까다로운 영아

행동특성(잠을 자지 않는 영아)

- 불규칙한 수면과 음식섭취를 나타낸다.
- 새로운 음식을 서서히 받아들인다.
- 새로운 상황에 서서히 적응한다.

■ 좌절에 대한 반응이 심한 분노로 나타난다.

■ 강렬하게 자주 부정적인 기분을 보인다.



부모의 역할

아이가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려 하고, 끈기있게 기다려 주며 적응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유형의 영아에게는 특히 1단계에 부모와 함께하는 시기가 적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가진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와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느낌이나 좋은 점을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꼭 가야한다고 욕박지르거나 야단치면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히려 어린이집에서 재미있었던 일 등을 얘기하면서 스스로 어린이집을 친숙하고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천히 반응하는 영아 ☀

행동특성(동원시만 우는 아이)

■ 새로운 것과 변화에 서서히 반응한다.

■ 수면과 음식섭취가 까다로운 영아보다 규칙적이고, 쉬운 영아보다 불규칙하다.

■ 새로운 자극이 여러 번 주어지고, 압력을 주지 않으면 점차 좋아하게 된다.



부모의 역할

이 유형의 영아에게 너무 성급하게 적응을 시도하면 위축되고 울게 된다. 부모는 영아가 조금씩 천천히 주변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며 안전한 거리에서 사물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비록 새로운 것에 저항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만 적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조심성의 감정이 즐거운 감정으로 바뀔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한다.

☀ 2001년 2월 일

이화어린이집

옛날반 신입아동 적응 사례

1. 적응 시 지도 원칙

- ① 영아의 특성을 고려함 (연령, 건강상태, 기질, 보육경험, 입소이유 등)
- ② 부모의 특성을 고려함 (양육자와 영아간의 관계의 질, 부모의 심리상태, 교사와 부모의 신뢰감)
- ③ 교사의 역할과 책임, 활동준비 계획 등 (발달에 맞는 상호작용, 적응기간 등)

2. 영아의 기질과 적응분류 원칙

일반적 유형으로 영아의 기질은 활동성의 수준, 생물적인 기능의 규칙성, 새로운 사람과 상황의 준비성, 변화에 대한 적응성, 감각적 자극에 대한 민감성, 기분, 반응강도, 산만성과 집중성 등의 9가지 하위 차원에서 일반적인 유형으로 나누었다.

① 쉬운 영아(잘 적응하는 영아) ☀

▶ 행동특성

- 새로운 것과 변화에 반응을 잘한다.
- 규칙적인 수면과 음식섭취 양상을 보인다.
- 새로운 음식을 쉽게 받아들인다.
-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적응한다.
- 순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보인다.
- 좌절 상황에서도 칭얼거림이 적게 보인다.
- 새로운 일상과 놀이 규칙에 빨리 적응한다.

▶ 교사의 역할

교사의 눈에 띄지 않는 편이라 쉽게 보육장면에서 잊혀지는 부분이 많아 오히려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했다.

② 까다로운 영아(잠을 자지 않는 영아) ☀

▶ 행동특성

- 새로운 것과 변화에 반응이 저조하다.
- 불규칙한 수면과 음식섭취를 보인다.
- 새로운 음식을 서서히 받아들인다.
- 낯선 사람에게 의심을 보인다.
- 새로운 상황에 서서히 적응한다.
- 좌절을 심한 분노로 반응한다.
- 새로운 일상생활에 천천히 적응한다.

■ 시끄럽게 울거나 크게 웃는 때가 많다.

■ 강렬하고 부정적인 기분을 자주 보인다.

▶ 교사의 역할

효과적 상호작용과 흥미 있어 하는 것을 이용해 관심전환 및 용용성 배려, 활동적인 면에서 기회와 장소 제공 등 관심이 필요했다.

③ 천천히 반응하는 아이 (등원시 우는 영아) ☆

▶ 행동특성

■ 새로운 것과 변화에 서서히 반응을 보인다.

■ 수면과 음식섭취가 까다로운 영아보다는 규칙적이고, 쉬운 영아보다는 불규칙적이다.

■ 새로운 자극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다.

■ 새로운 자극이 여러 번 주어지고 압력을 주지 않으면 점차 좋아하게 된다.

▶ 교사의 역할

충분한 사물 탐색과 적당한 상호작용, 환경변화를 가능한 줄이고 영아가 안정을 갖는데 중점을 두었다.

3. 햇살반 신입영아의 기질에 따른 분류

기질에 따른 분류	이 름	비 고
쉬운 영아 (잘 적응하는 아이)	C, S	
까다로운 영아 (잠을 자지 않는 아이)	J, L	* 일반적 유형 중 가장 많이 보이는 행동특성으로 기질 분류를 선정했음
천천히 반응하는 영아 (등원시 우는 아이)	E, M, K	
기존 입소 원아	Y	* 신입원아로 인한 기존 입소원아의 행동특성

4. 햇살반 신입 영아 프로파일

- ① 가정환경조사서
- ② 기본생활 습관 조사지

5. 적응 상황 및 평가

- ① 전반적 발달 체크리스트 (2001. 3. 5 / 2001. 3. 31 기준)

6. 보육관찰일지 (2001. 3. 5 ~ 2001. 3. 31)

[표 1]

가정 환경 조사서

년 월 일 현재		이화어린이집		
반 명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현 주소	전화번호			
우리 어린이를 더욱 이해하고 개인적인 성공을 돕고자 하여 다음과 같은 몇 항목을 조사하오니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세요.				
태아기	임신중	질병, 큰 근심, 놀람, 건강, 충분한 영양		
	출생기	출생기		
영아기	아동의 영양	정상적분만, 조산(개월), 난산, 계왕절개, 기타 ()		
	이유시작시기	인공영양, 모유, 섞어서, 유모		
	양육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유모, 기타 ()		
유아기	걷기시작	몇 달만에 ()		
	질병	홍역, 말라리아, 백일해, 결핵, 수두, 소아마비, 기타 ()		
	언어	정확하다 () 보통이다 () 더듬거린다 ()		
면재	식사의 습성	가장 좋아하는 음식 () 가장 싫어하는 음식 ()		
		언제나 식사를 즐겨 먹는다. () 먹으라고 야단해야 먹는다. ()		
		식사시간이 일정하다. () 아무때나 먹는다. ()		
		그밖의 습성		
	수면의 습성	간식	먹는다 (하루 회), 시간을 정해 (), 장하지 않고 ()	
		혼자 잔다. () 부모와 함께 잔다. () 잠들기 어렵다. ()		
		밤에 오줌을 쓴다. ()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한다. () 잠꼬대를 한다. ()		
건강한 친구	자는 시간 () 일어나는 시간 ()			
	건강하다. () 보통이다. () 늘 허약하다. ()			
	싸움을 잘한다. () 얌전하다. () 친구가 많다. () 친구가 늘 바뀐다. () 한번 익숙하면 계속해서 논다. ()			
		친구집에 가서 논다. ()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논다. ()		

면	정서적	잘 운다. 수줍다. 낯선 사람을 무서워 한다. 특별히 무서움을 탄다.
		화가 나면 (말을 안 한다. 밖에 뛰어 나간다. 밥을 안 먹는다.)
		대인관계: 원만하다. () 원만하지 않다. ()
		그 외의 습성 ()
재	놀이	활동적인 놀이 () 비활동적인 놀이 () 실내놀이 () 실외놀이 ()
		특히 잘 하는 놀이 () 싫어하는 놀이 ()
아 동 을 위 한 환경	주거형태	월세 () 전세 () 자기집 (단독 () 아파트 () 기타 ())
	아이를 위한 방	아동을 위한 방이 있다 () 없다 ()
	실내	인형, 소꿉, 블록, 그림책, 그림 맞추기, 나팔, 북, 공, 기타 ()
	실외	미끄럼틀, 그네, 활봉, 모래상자, 자전거, 기타 ()
가 족 의 태 도	부모의 양육태도	엄격 () 보통 () 방관(자유) ()
	아동과 제일 많이 생활하는 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 가정부, 그 외의 분 ()
	아동에 대한 가족의 태도	특별히 사랑한다. () 형제와 동등하게 대한다. () 아동의 의견을 존중한다. () 의견을 무시한다. ()
	아동의 습관에 대한 태도	늘 지도해 준다. () 때때로 지도한다. () 시간이 없어 지도 못한다. () 나쁜 버릇은 없다. () 있다면 ()
담당자에게 연락해 두고 싶은 일		

[표 2]

기본생활습관조사지

해당사항을 □나 ()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작 성 일: 년 월 일		
영유아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		
구 분	내 용	
역 기	수 유	☐ 일정 시간 간격으로 계획적인 수유를 한다. () 시간이다 ☐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수유를 한다.
	이 유	생후 () 개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일일 () 회 제공
	식 사	식사여부 아침 () 점심 () 저녁 ()
	간 식	식욕 ☐ 잘 먹는다. ☐ 그저 그렇다. ☐ 잘 먹지 않는다.
잠 자 기	습 관	일일 () 회 주로 먹는 간식 ()
	기 상	() 시경 일어난다.
	낮 잠	일일 () 회 총 () 시간 정도 낮잠을 잔다. () 시부터 () 경까지 잔다.
	취 침	☐ 규칙적이다 () 시경 잔다. ☐ 불규칙적이다.
대 소 변 가 리 기	잠자기	☐ 업어야 잔다. ☐ 엎드려서 잔다. ☐ 두드려 주어야 잔다. ☐ 혼자서 잔다. ☐ 기타 ()
	기저귀	☐ 현재 사용한다. ☐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 () 세경부터
	지도여부	☐ 대소변 가리기 지도를 한다. ☐ 가끔 한다. ☐ 하지 않는다.
	대 변	☐ 가린다. 일일 () 회 정도 한다. ☐ 가리지 못한다. ☐ 잘 때만 기저귀를 새운다.
	소 변	☐ 가린다. 일일 () 회 정도 한다. ☐ 가리지 못한다. ☐ 잘 때만 기저귀를 새운다.
습 관		

구 분		내 용
물건 정리하기	옷 입고 벗기	☐ 입히고 벗겨준다. ☐ 도와주면 입고 벗는다. ☐ 스스로 한다.
	손 씻기	☐ 씻겨 준다. ☐ 도와주면 씻는다. ☐ 스스로 씻는다.
	이닦기	☐ 이 닦기를 매일 한다.
	세수하기	☐ 이 닦기를 매일 하지 않는다.
정리정돈	이불개기	☐ 씻겨 준다. ☐ 도와주면 씻는다. ☐ 스스로 씻는다.
	신발	☐ 개어 준다. ☐ 개는 것을 돕는다. ☐ 스스로 개는다.
	신고 벗기	☐ 신기고 벗간다. ☐ 도와주면 신고 벗는다. ☐ 스스로 신고 벗는다.
	옷걸기	☐ 걸여 준다. ☐ 도와주면 건다. ☐ 스스로 건다.
	장난감 정리하기	☐ 정리해 준다. ☐ 도와주면 정리한다. ☐ 스스로 정리한다.
인사하기	만나고 헤어질 때	사람과 만나서 헤어질 때 인사나 인사말을 한다. ☐ 잘 한다. ☐ 그저 그렇다. ☐ 하지 않는다.
	상황에 맞게	사과해야 할 때, 감사해야 할 때, 상황에 맞는 말이나 표현을 한다. ☐ 잘 한다. ☐ 그저 그렇다. ☐ 하지 않는다.
	잠자기 전후에	잠자기 전후에 인사말을 한다. ☐ 잘 한다. ☐ 그저 그렇다. ☐ 하지 않는다.
	식사 전후에	식사 전후에 인사말을 한다. ☐ 잘 한다. ☐ 그저 그렇다. ☐ 하지 않는다.

1



이보경 · 서울, 회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부터 서울지부 총회였는지, 전국 총회였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총회라는 것도 참석해 봤지만, 확실히 회원일 때와 비회원일 때는 느낌이 틀리더군요. 게다가 수련회를 곁들여서 하는 것은 처음으로 참석한 것이었는데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귀한 만남들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아직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없어 좀 거리감을 느끼지 않은 바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들과 수련회 및 총회의 내용을 열심히 귀 기울여 듣고 나름대로 의견도 내 보았네요.

조별 모임에서 저는 "교육"파트였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지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한국보육교사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몰랐고 관심도 적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를 이름을 알고 회원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여기 저기 뛰어다니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한 보육교사회를 알기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이 새로 들어온 회원에게 [한국보육교사회]의 철학이나 교사상이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엔 비상근교사라는 자리에서 소모임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일요일엔 지난 1년을 종이접기에 시간을 투자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지냈다는 자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지부에서 (실천하는 교사상을 받은 것은 매우 뜻밖이고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을 받은 것이 제가 서울지부 소식지인 '야! 찾았다.'의 편집을 했다는 것이었는데 그것 말고는 참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말로 받아 들이고 더욱 열심히 배우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한국보육교사회]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총회 때는 더 많은 선생님들과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선생님들 파이팅!!!

정연화 · 경기, 평동어린이집

총회 때 많은 선생님들 다시 뵙 수 있어 정말 기뻐요.

작년 총회 때 지부마다 돌아다니며 노래하고 뽀뽀하고 다녔을 때도 너무 재미있었구요.

올해 총회 때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부산지부 멋진 춤도 재미있었구요, 총회 내용도 작년에 비해 많이 알아듣게(?) 되었구요..

지부끼리 못다 한 이야기꽃도 피웠구요, 모두 잠든 새벽녘에 광주, 전남지부에 가서 얼굴도 잘 모르는 선생님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들은 얘기들도 재미있었구요, 모두 적을 수 없을 만큼 자~알 보내고 왔습니다. 어...어찌지!! 연화만 재미있고 연화랑 지낸 다른 분들은 별무...? 아니죠?..

아 참... 가장 놀라고 뜻 깊었던 사건! 정연화가 경기지부 모범회원상에 뽑혔답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너무 감사하구요.

올 한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죠? 말처럼 뛰어나다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올해 힘 내셔서 화팅!

류지민 · 인천, 회원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들의 심장소리를 내 가슴속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 이번 수련회와 총회를 통해 배운 것이랍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사례발표와 조별토의... 또 함께 한 시간들...

아마 추억으로 남아 언제든지 그 향기를 곱게 뽀아내겠지요...

아~ 그러구요... 총회 때 큰상도 받았답니다.

맨 마지막에 얼떨떨하게 나가 상 받은 땀굴이 기억하시죠? 그게 저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이었지요...

한국보육교사회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꾸벅~! ()

오윤정 · 서울, 한미어린이집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회원이 되려면 열심히 총회에 참가해야 하니까 총회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 갔는데 역시 그래도 힘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회 식구들 우리 열심히 생활합시다.

보육교사회 일을 열심히 못 하더라도 있는 현장에서 좋은 교육, 좋은 교사, 좋은 보육을 실천하는 것이 보육교사회의 재산입니다.

지연 · 경기, 평동어린이집

날로 발전하는 보육교사회가 될 수 있도록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해주시는 대표님들과 사무국 식구들의 수고를 또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함을 전하고 싶군요.

정말 총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남아 계신 선배언니들을 보면서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을 보면서 가족이 늘어나는 뿌듯함과 신선한 파릇파릇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기억해보면서 궁금하고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래보기도 합니다.

시간에 쫓겨 총회가 끝났지만 우리 평동의 막둥이 연화가 모범회원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글썽 막둥이가 점심을 사줬다고 해서 맛난 점심을 먹고 배불러 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조직논의를 통해 더 발전되고 재미있을 여름 수련회가 벌써부터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보육교사회 회원 여러분 여름 수련회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이기원 · 경기, 평동어린이집

이번의 정식 명칭은 수련회와 총회였지요.

어느 때보다 조직부장님들과 회원들의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영미 샘의 재치 있는 퀴즈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그렇게 박식하고 선물에 눈이 어두웠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았다니깐요.

또, 모두가 반응작한 모범회원상에 대해서 열성새내기 연화 샘에 대해 축하하는 선배모습을 보며 그 선배들의 그 후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모두 모두 지금의 열의와 즐거움이 있다면 아마도 올 한해 서로 힘 받아서 잘 할 수 있겠지요.





【 서은희는 행복하겠다 】

이기 원 · 본회 공동대표



모두 모두 총회의 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과 불가피하게 참가 못한 모든 회원들에게 수고,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총회 시간에 쫓겨 아쉽게도 그간 너무도 열성적으로 일해주신 서은희 전 대표님 이임식을 짧게 끝내 아쉬움이 남지만 교육센터장으로 계시니 그저 든든합니다.

그래서 잘린(사실은 제가 서은희생애 대해 글을 남독하기로 했거든요) 미발표글을 남기려 합니다.

혹 사실과 다를 시는 저에게 신고(?)해 주시면 정정기사를 쓰겠습니다.

아울러 부회장3년, 공동대표1년을 거쳐 여전히 교육센터장으로 활약하실 서은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은희의 그녀는 양파다

양파해에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나이는 85학번 대우다.

그래서 양파들은 그녀를 '언니'라고 부른다.

서은희의 그녀는 안양파다

일명 '안양파'

88년 뜻한바 있어 안양에 땅박은 지 벌써 10년하고도 4년초과다.

그녀가 안양에 즐기치게 사는 이유는? 그건 그녀에게 물어보시라.

서은희의 그녀는 '복터'였다

내가 보기엔 족히 2-3년 연하로 보이는 4년연상의 남편과 부모의 장점을 속 닮은 멋진 한결이가 있다.

서은희의 그녀는 아줌마가 아니다?

벌써 학부형이 된지 한참인 그녀를 보고 "어머, 결혼하셨어요?"하고는 나더러는 "아이가 몇이세요?"한다.

세상 참 불공평하다

서은희의 그녀는 '오래 묵은 회원'이다

'10년동안 조직이 나에게 준 것이 많아 나도 이제 조직을 위해 일할 때다'라는 명언을 남겨 그 당시 쇼크

먹은 사람이 정모 전회장님을 비롯해 여럿이었다구요. 그 후유증(?)으로 나도 지금 이 글을치고있다.

서은희의 그녀는 이랬다

첫인상: 잘 기억 안 난다. 그만큼 눈에 띄는 미모는 아니다.

두 번째 인상: 말붙이기 힘들다. 특히 편가 고민한 듯 한 자태는 더더욱 모라를 내리게 한다.

만난 지 1년째: '열정'이 느껴진다. 아니, 그 마른 몸에 웬 열정이 넘치는지.

'서은희가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만나고 지금까지: 철저하지만 따뜻하다. 매일 보지 않지만 일에 대한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나 이쁘다. 하지만 총회 때처럼 파마하고 나오면 귀엽기도 하다.

서은희의 그녀는 청춘이다

조성모의 다짐을 부르며 춤을 추는 그녀모습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청춘이다.

서은희의 그녀는 수고 많았다

그녀는 지금 부회장 3년, 공동대표1년을 마감하고 2002년 다시금 우리 곁에서 함께 호흡할 것이다. 그동안 묵묵히 맡은 바 일을 200%달성한 그녀는 정말 수고 많았다.

서 서히 들어 보세요

은 근히 스며드는 그녀의 모습

의 망의 불꽃입니다.

당 당하면서도 지칠 줄 모르는 그녀의 삶은 나도 닮고 싶다 ——

【 여러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

이선 주 · 본회 교육부장

이건, 사무국장이 수련회 밤을 위해 고민해서 쓴 글입니다.

함께 하는 마당에서 시디플레이어가 떨어지고 분위기가 어수선한 와중이라 그 머뭇글이 빛을 발하지 못 하여, 요기에 다시 실습니다.

사무국장이 저작권, 어찌고 따지면? 라는입니다.

gxd의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전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그 길을 선택했고, 지금도 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끝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걸어갑니다.

가는 사람이 나 혼자였다면 너무 외롭고 무서워 아무 데고 주저앉았겠지요.

가는 사람이 나 혼자였다면 내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졌겠지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나 혼자였다면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길을 우리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 때 같이 아파해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 해줍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내 희망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굳혀줍니다.

'우리가 있어 오늘도 힘내어 기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그 길은 길이 아니었겠지요.
나무로 덮여진, 풀이 무성한 산 속이었는지 모릅니다.
돌다리 하나 없는 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큰 돌덩이로 채워진 바윗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들어선 그 길은
누군가의 발자국 따라 나무와 풀이 사라진 흙길이었습니다.
누군가 놓아 둔 강물 위의 돌다리였습니다.
누군가 뚫어놓은 터널이었습니다.

처음 그 길을 만든 누군가의 수고와 맘으로 나는 쉽게 그 길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나온 길이 때론 산 속의 구불구불한 길이기도 했고,
때론 흔들흔들 거리는 돌길이기도 했고
때론 불빛 없는 터널이긴 했어도
그곳은 누군가 먼저 걸어간 길이였기에 나는 쉽게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길이 이제 우리 앞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길을 바라보며 나는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만들어준 그 누군가의 수고로움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길의 끝을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 나는, 우리는, 다시 처음의 그 누군가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얼마 있어 나타날 눈앞의 나무들을 헤치며
얼마 있어 나타날 강물에 돌을 던지고
얼마 있어 나타날 바위를 뚫어서, 앞으로의 길을 만드는 그 누군가가 될 것을 결심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 길에 들어서서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결심합니다.

나 혼자가 아픔을 알기에 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에 그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만들어 주지 않지만 그 길을 우리이기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누군가가 다져놓은 그 길을 계속 걸어왔으니까요.
우리는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 믿고있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Food Allergy)

김영숙 · 안산시보육정보센터 영양사

[아래의 글은 2002년 안산보육정보 3,4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식품에는 성장과 영양에 필요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외에도 특정한 약물 효과를 가지는 물질, 심지어는 항생제와 같은 여러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음식을 섭취 후 바라지 않는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경우를 흔히 경험하게 된다.

아직 믿을 만한 진단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발생 빈도는 사실상 알기 어렵지만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자주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우유의 경우 0.3~7.5%의 발생빈도가 보고되고 있다. 영아기에 이유식을 너무 일찍 주면 구토, 복통, 설사, 소화불량, 발진 및 두통 등의 알레르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원인물질

어떤 식품이라도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우유, 콩, 계란, 생선, 호두, 밀, 감귤 등이 흔한 원인이다. 식품들은 가열 혹은 소화 효소에 의한 처리 및 성장기에 따라 항원성의 변화를 갖게 된다. 열처리 에 의해서 대부분의 우유 단백질은 항원성을 상실하지만, 어떤 종류의 단백질은 항원성을 그대로 유지할 뿐 아니라 가열에 의해 오히려 항원성이 항진되기도 한다.

또 결실기의 토마토는 어느 성장기에서 보다 항원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장은 자기방어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 상태에서는 장 점막을 통하여 분자량이 큰 식품이 체내로 흡수되지 않지만, 장 점막이 미숙한 신생아 혹은 영아,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 등이 있을 때는 흡수가 가능해 진다.

※ 알레르기 일으키기 쉬운 음식물

곡류	빵, 국수, 과자류의 밀가루(글루텐), 메밀음식, 옥수수 등
콩류	대두, 두부, 두유과일 등
채소류	귤과 오렌지의 알갱이와 껍질(오렌지즙 무관), 토마토, 딸기, 복숭아, 시금치, 키위, 바나나, 메론, 고추, 토란, 죽순, 두릅 등
육류	닭고기, 돼지고기 등
어패류	등푸른 생선(고등어, 삼치 등), 연어, 새우, 게, 조개, 홍합, 대구 등
유제품류	우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치즈, 분유 등
견과류	땅콩, 호두, 아몬드 등
기타	달걀, 마요네즈, 튀김, 케이크, 초콜릿, 이스트 등

증세

알레르기의 증세는 환자의 나이, 섭취한 식품의 종류, 병변의 형태와 범위에 따라 사소한 복통으로부터 심한 아나필락시스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전신성 아나필락시스는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수분 내에, 늦게는 몇 시간 내에 여러 장기에 병변을 초래하면서 쇼크로 진행되기 때문에, 발생 빈도는 적지만 임상적으로 특히 중요한 증세이다. 신생아 혹은 영아기에는 우유가 주원인이고 증세도 심해서 드물지 않게 쇼크의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생후 2~4주를 지나 첫 증상이 발생하지만 더 일찍 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다.

주된 증상으로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 구강 점막의 부종과 소양감, 구토, 복통, 복부 팽만, 설사, 장출혈, 흡수 장애 등을 나타낸다.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두드러기, 발진과 혈관부종, 아토피성 습진 등이다.

호흡기 증상으로는 천식, 비염 등이며 기타로 행동 장애, 두통, 영아돌발사, 염증성 대장염, 관절염, 혈관염, 혈소판 감소, 부정맥, 아나필락시스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식이요법

음식물 알레르기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은 원인이 되는 음식을 판단하여 그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원인이 되는 음식을 그대로 섭취하면서 약물요법에 의해서 음식물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것은 그 효과가 한계가 있다. 원인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방법을 회피요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원인 음식물이 정확히 진단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치료법이다.

원인 음식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병력 피부반응검사 소견 혈청내 특이 항체검사 식이요법에 의한 진단 등 모든 시행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식이요법에 의한 진단에는 음식물일지(food diary), 제한식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종류로는 원인으로 의심되는 음식을 시험적으로 금지해 보는 방법이 있으며 그 음식물이 맞는 원인일 경우에는 증상 호전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이므로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치료방법이다. 그러나 음식을 알레르기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음식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심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치료가 간단하지 않다.

식이요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원인이 되는 음식을 알고 식이요법을 하면서 증상을 정확히 보고하는 환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유식 알레르기 예방

이유식 먹인 후 구토, 발진 있으면 음식알레르기인지 의심한다.

아기들은 각종 알레르기를 조심해야 하는데 이유식도 예외는 아니다.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식품은 콩, 땅콩, 국수, 초콜릿, 옥수수, 우유, 달걀 등으로 이유식을 먹인 후에 구토, 발진,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유식을 끊고 알레르기의 원인을 알아본다.

초기에는 신선한 과일로 이유식을 만든다.

초기 이유식은 주로 신선한 과일즙으로 하는데 모유나 분유밖에 먹지 않은 아기에게 1백% 과즙은 자극이 강할 수 있으므로 끓여서 식힌 물을 섞어 2~3배로 희석시켜 먹인다. 아기들은 채소나 과일보다 단백질에 의한 알레르기가 많으므로 초기 이유식 때는 알레르기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과일 중에서도 키위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먹인 후 반응을 잘 살핀다.

중기에는 감자, 고구마를 삶아 으개서 먹인다

과일즙 시기가 지나면 알레르기 걱정이 없는 감자나 고구마 등으로 중기 이유식을 시작한다. 건더기가 있는 것은 아직 잘 넘기지 못하므로 감자나 고구마를 삶아 곱게 으개 먹이는 것이 좋다. 과일 역시 익혀서 먹인다. 달걀은 조심해서 먹이기 시작해야 하는데 환자는 노른자보다 단백질이 많아 알레르기를 일으킬 확률이 높으므로 노른자부터 먹이기 시작한다.

후기에는 돼지고기, 흰살생선 등 단백질을 먹인다.

생후 10개월이 지나면 단백질의 양을 늘려야 한다. 등푸른 생선은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흰살생선부터 시작한다.

신선한 재료를 충분히 익혀 먹는다.

알레르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알레르기의 원인 식품을 알아내는 것이다. 단백질이 풍부한 이유식을 먹인 뒤에는 아이의 신체에 이상이 없는지 꼭 살피고 이상이 나타나면 다음부터 원인 식품을 제거하고 이유식을 만든다. 인스턴트가 아닌 신선한 재료를 골라 충분히 익혀 먹는 것도 중요하다. 달걀은 완숙으로 먹었을 때보다 반숙으로 먹었을 때 알레르기를 일으킬 확률이 훨씬 높다. 또한 과일이라도 익혀서 먹이면 알레르기를 피해 갈 수 있다.

우유 알레르기인 경우는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은 피하고 두유, 생선, 달걀로 대체한다. 달걀 알레르기인 경우에는 완숙한 노른자부터 먹이고, 콩이나 땅콩이 알레르기를 일으킨 경우에는 콩기름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튼튼이 형아들의 이야기

김숙자 · 서울, 튼튼이 공부방

01 튼튼이 주변엔 흠을 뵈어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몇년전만 해도 기차길 옆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어 배추랑 무, 호박이 점점 커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비가 온 뒤엔 조금씩 고여있는 웅덩이에서 낚시놀이(?)도 할 수 있었는데...

그곳엔 여지없이 차를 위한 길이 생겼다.

그리고 인도 옆엔 아주 조금만 흠이 남아 있다. 그 속에서 강아지풀이 자랐다. 그것도 보통 강아지풀의 두 배에 달하는 크기로.

그걸 발견한 사람은 튼튼이 공부방의 막내 찬무. 놀이터를 가는 중이었다.

찬무(7세): 선생님! 강아지풀이 무지 커요.

다른 아이들도 모두들 크다며 하나씩 뽑고 있는데 한마디 더 한다.

찬무: 선생님! 이건 강아지풀이 아니라 개풀이에요.

02 방학이 시작되니 아이들은 또 공부방에서 MT를 하자며 조른다.

하루종일 자내는 곳인데 지겹지도 않은지... 결국 연초부터 아이들의 외박은 시작되었다.

1월 3일, 아이들은 7시까지 공부방에서 있다가 집에 간 후 저녁을 먹고 9시에 모였다.

오자마자 옷을 벗어 내복만 입은 채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계속 웃어가며 떠드는 아이들.

자고 싶을 때 자겠다는 아이들의 요구에 의해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12시를 넘어가니 하나 둘 조용해진다. 그러곤 모두들 꿈나라로...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의 재잘거리는(나름대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소리에 6시 30분쯤 얼핏 잠이 깼는데 나의 잠을 확실하게 깨주는 이야기.

민종(3학년): 나 30분밖에 안 잤어. 6시에 잤는데 지금 6시 30분이잖아.

다른 아이들은 감탄하는 눈빛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나: 민종아! 12시 30분하고 6시하곤 바늘의 위치가 틀리단다!!!

예쁜 세 살이여 안녕!

이정미 · 광주전남, 도담도담어린이집

지난 한 해 영아들의 하루 주인공이었던 튼튼이반 아이들이 이제 예쁜 세 살을 졸업하고 애매 모호한 네 살이 되었답니다.

어찌 귀신같이 잘도 알아채고 2002년이 되자마자 말은 안 듣고 싸움질에 어리광만 부리는지...

드디어 대망의 2002년 3월 4일.

입학식 및 재원식을 거행하며 또롱이반으로 진급을 하게 되었어요.

명실공히 도담도담 영아어린이집의 제일 큰형아 누나 반으로서 이제 사정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리광도 안퉁하고, 공장하지 못한 싸움도, 규칙에 상관없이 제 멋대로 행동하는 것도...

이젠 모두 동생들 차지로 물려 줘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선 아직도 "우리 아기! 우리 강아지!" 하는데 어린이집에선 "어린이, 형, 누나" 취급을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정말 헛갈립니다.

홍인기, 박재호, 서현우, 김도훈, 장정원, 양지성, 김혜원, 박유빈, 이승은, 박하연, 김민경, 이정은 모두 함께 진급한 친구들에, 정세은, 양두형, 추민수도 함께 자내다 조금 먼저 진급했을 뿐이고, 새 친구는 고작 박영채와 최유진 뿐이고, 선생님도 한 분은 바뀌고, 한 분은 그대로고...

달라진 것 보단 그대로인 게 더 많은데 말예요.

아침에 들어서면 인사 할 때까지는 좋은데 교실을 찾아가는 데서 꼭 "아니지요, 또롱이반은 이쪽인 데요!"

외투랑 가방을 정리하고 나서 튼튼이 반에 들어갈라치면 어김없이 "다음에 놀러 오세요!"

한참 놀다가 쉬-가 마려워 뛰어들어가면 "또롱이 화장실은 저 쪽입니다." 등등

벌써 삼일 제인데 아직도 자꾸만 실수를 해요.

그중에서도 오뉴월 하루 별이라고 더욱 심하게 티가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심심한 네 살 친구가 두 명 있는 데요.

한 명은 12월 생.

아, 글썽 새로 온 친구에게 장난감을 빼앗으려다가 힘으로 안되니까 코를 양-물어서 모두들 황당무개하게 만들고요.

또한 명은 2월 생인데요.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아도 눈 바로 아래를 사정없이 꼬집어서 혼장을 달아주고 말아요.

하지만 선생님한테 혼이 나면 옛날처럼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는 것쯤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잘 참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어제랑 오늘은 비가 왔어요.

봄비가 말예요.

선생님들이 그러시는데 봄비 맞고 쑥쑥 자랄 거래요.

우리들 말예요.

오늘은 커다란 소리를 내는 북을 두드려도 보고, 그 소리에 맞춰 걸어도 보고, 매직펜으로 동그란 종이에 그림도 그렸어요.

역시 또롱이 반이 되니 재미있는 점도 많아요.

밥을 먹을 때에도 식판을 사용하는데 아직은 서툴러서 많이 흘리지만, 밥 먹는 시간도 더욱 즐겁고요.

손 씻을 때에도 선생님이 눈 꼬옥 감아 주시니까 물놀이도 잠깐씩 할 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인제는 죽염 양치 안하고 거품 나는 치약으로 차가 치카를 한다니까요.

선생님들 말씀대로 봄비 맞고 쑥쑥 커서 폼 나는 또롱이반! 의젓한 또롱이반! 이 되었을 좋겠어요.

코- 자면서 손 마주잡고 기도해 볼래요.

2002년 한 해도 또롱이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서명합시다!

1. 본회에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이버 서명 운동'을 전개합니다. 본회 홈페이지(www.kdta.or.kr)에 오셔서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를 비롯한 여성, 시민 단체는 '보육예산 두 배로 올리기 국민서명전'을 4월 말까지 전개합니다. 지역의 부모, 보육 교사, 시민 여러분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서명합니다.

육아일기

무지 아프던 날

전경숙 · 경기, 회원

그렇게 아프던 것이 몇 년만(?)인 것 같다. 일어날 기운도 없고 온몸 안 아픈데 없이 쭈시고 결리고... 무리를 했나 보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주저앉았기 때문에 애들 아빠는 출근시키고, 자고 있는 아이들 더 재울 요량으로 두고 가라고 했다. 지 몸도 못 가누면서 무슨 재주로 아이들을 볼 생각이었는지.

애들 아빠 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눈을 감았는데 10시쯤 되었나? 날이 환하니까 아이들은 한번 일어나서 엄마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다시 잠들고, 12시 다되어서는 배가 고왔는지 깨서는 밥 달라고 하면서 나를 깨우기 시작했다. "엄마 아파." 라고 대답하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제서야 후회를 했다. 어린이집에 가면 점심에 간식에 챙겨 먹일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누워 있었다.

지들끼리 베게 꺼내고, 이불 꺼내고 인형 들고 왔다 갔다...

"엄마 씨리얼 먹어도 돼?"

"응, 그래."

"소정아! 언니가 따라줄게." 하는 소리를 간간히 들으면서도 다시 잠이 들었다.

몇 시쯤 되었을까 소언이랑 소정이랑 부산스럽게 웃을 입을 소리가 나더니, "엄마 나가도 돼?" "금새 들어와야 돼" 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다. 아이들이 나간 지가 한참 지났는데 아이들 소리가 나지를 않았다. 시계를 보니 아이들이 나간 지 두어 시간정도 된 것 같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 아닐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바로 옆집에 인터폰을 해보았다. 잠깐 왔다 갔다는 것이다. 휴- 우선 안심. 그럼 지금 은 어디에 간 거지? 같은 충 소정이 또래 아이 집에 놀러갔나? 이럴 때 전화번호라도 알아두었으면 좋을 것을 어찌 이리 무심한가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연락해서 연결해 달라고 했다. 거기 있다고 했다. 밥 먹고 간식 먹고 잘 놀고 있다고 했다.

휴- 안심.

자숙들! 살 궁리는 다 알아서 하네. 엄마가 안 생겨 주니까 남의 집에 가서 해결하고... 기특한 녀석들." 고마워요. 아이들이 귀찮게 하면 집으로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그 엄마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해준 것도 없이 받기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래서 이웃이 좋은 거구나.

그러고는 다시 가서 누웠다. 더 이상 잠은 오지 않았다.

하루종일 굶긴 것이 미안했다. 저녁은 해주어야지...

부스스 일어나서 둘러보니 우유에 씨리얼 부어먹은 그릇, 이불에 인형에 베게에...

방안 가득 놀이감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어질러져 있었다. 그래도 화가 나질 않았다.

변기에는 대변 본 것이 휴지로 덮여있었다. 어렴풋하게 기억이 난다. '엄마 소정이 용가 했는데 내가 뒤아주었어' 하고 소연이가 내게 보고했던 것을...

기특한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챙겨주지 않아도 저들끼리 알아서 먹고 놀고 동생 챙겨주고...

우리 소연이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나?

집안 정리하고 저녁 준비하는데 소연이와 소정이가 들어와 팔을 활짝 벌려 안아주었다. 하루종일 무사히 자내준 것이 너무 고마웠다. 이런 놈들.

그리고 이웃의 소중함도 다시 느꼈다. 이웃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내일은 김치 전이라도 부쳐서 가져가야겠다.

또 한가지 내 몸의 소중함도 느꼈다. 이제는 20대의 몸이 아니구나. 함부로 굴러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30년은 더 써야 할 이 몸을 이렇게 함부로 하다가는 10년 내에 고장이 날 것 같다. 지금도 이곳 저곳이 삐걱거리는 것 같은데...

아껴 쓰자 내 몸. 사랑하자 내 몸.

몸이 아픈 이후로 운동을 시작했다.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소연이와 소정이 마주 이야기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고 소연이, 작은 일을 보는 아빠 뒤에서

소연-아빠는 참 힘들겠다.

엄마-왜?

소연-서서 오줌 누니까...

엄마-응????

전래놀이에 심취(?)해 있는 소정이.

3.1절 기념 특집방송에서 만세 부르는 장면을 보고는

소정-엄마, 저 사람들 꼬리 따세 하는거야?

엄마,아빠-응?

좋은 그림책 소개

아빠랑 함께 피자 놀이를

오진원

윌리엄 스타이그 글, 그림 / 보림 /
2000. 3. 15 초판 / 6000원



아래의 글을 어린이문학 전문 홈페이지인 [오른발·왼발]에서 퍼온 글로 홈페이지 주소는 www.childweb.co.kr입니다. 아울러 이 글을 본화에 실는 것을 허락해 준 오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친구들이랑 공놀이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못 나가게 돼서 그렇다나요?

어른들이 보기엔 별 일도 아닌 것 같지요. 집안에서 다른 놀이를 하다가 비가 그치면 나가 놀면 간단한 일 아니까요. 그런데 아이는 여전히 심통이 나서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른들한테는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죠. 엄마는 심통이 난 아이를 보며 서서히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땐 아주 조심해야지요. 자칫 잘못하면 아이와 엄마 사이에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결국 아이나 엄마나 모두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맙니다.

그러나 아이가 심통이 나 있다면 아이의 기분을 먼저 풀어주세요. 풀어주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으니까요. 딱딱하신 분들은 이 책에서 힌트를 얻으면 돼요.

이 책의 주인공 아이인 피트도 심통이 나 있어요. 비가 와서 밖에 나가 공놀이를 할 수 없게 되어서 말

이에요.

아빠는 이런 피트를 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녀석을 피자로 만들어 주면 기분이 좋아지겠지!'

피트를 피자로 만들다니?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제부터 아빠가 피트를 피자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표지를 보세요. 이제 보니 얼굴도 피자랑 똑같네요. 표지는 앞표지와 뒷표지가 똑같은 모양이어서 가끔 어디가 앞인지 헷갈리기도 한답니다.)

아빠는 피트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피트는 지금부터 반죽이 되는 거지요) 피트를 굴리고 밀리고 잡아당겨 늘이고 공중으로 올려 빙빙 돌리기도 합니다. 반죽이 다 된 피트의 몸에 기름(물)을 듬뿍 바르고, 밀가루(쌀뜨물)를 살살 뿌리고, 토마토(장기 말)를 얹고, 치즈(종이)를 얹어요.

피트는 어느새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빠가 식탁으로 안고 가는 사이에 빙그르르 웃음을 짓던 피트는 나중엔 찢길대고 그리고 대굴대굴 뱅글뱅글 웃음을 터트리며 말지요.

피자는 오븐(소파)에 넣어져 노릇노릇 구워진 다음 다시 식탁으로 옮겨옵니다. 이제 피자를 찢어야 할 차례거든요. 그러자 피자는 도망을 가고, 피자 요리사인 아빠는 피자를 잡으러 쫓아갑니다. 결국 피자가 잡혀서 아빠 품에 꼭 안깁니다.

그리고,

어느새 비가 그치고 해가 다시 나오고 피자는 공을 들고 밖으로 친구들을 찾아 나섰지요. 아주 기분 좋게 말이에요.

정말 멋진 아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피트를 피자로 만드는 동안 엄마는 뭐 했나구요? 엄마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지요. 처음엔 조금 걱정스런 표정으로, 언짢은 표정으로, 그러다 결국 너무나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피트 마음을 풀어주는 데 이 방법이 아주 좋다는 걸 눈치채신 걸거예요. 이제 엄마도 피트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런 방법을 써보지 않을까 여겨지네요.

집에서도 한번 해 보세요. 아주 효과 만점입니다. 아이 몸을 이리 저리 굴리며 피자 반죽을 하고 피자를 만들면 아이는 찢찰찰 웃어대느라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피자가 질리면 파전(?)을 만들어도 돼요. 반죽을 좀 질게 하고 '파'며 '조갯살', '오징어' 같은 걸 듬뿍 넣으면 되거든요...

이제 집에서 목소리 높여 싸움(?) 일이 좀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4월의 강좌 안내

강좌명: 유아의 관점에서 본 놀이 이해

■ 강사: 정은경 (이화여자대학교 및 동 대학원 문학박사 / 성균관대, 동덕여대 등 출강)

■ 일시: 2002년 4월 20일(토) 오후 3시 ~ 7시

■ 장소: 여성평화의 집 지하 교육장

■ 교육비: 15,000원(정회원 20% 할인)

■ 사전입금: 한빛은행 817-366200-02001 이윤경

■ 접수기간: 4월1일 ~ 4월18일 (전화 02-2271-1548 담당자: 이강선주)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아이들은 놀면서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현장의 보육 교사들 대부분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을 관찰하고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실제 현장에서는 아동들의 놀이가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론과 현실의 차이일까요?

4월의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강좌는 어른의 관점에서가 아닌 '유아의 관점에서 본 놀이 이해'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현장에서 시간 때문에, 계획된 활동 때문에, 다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아이들의 놀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거나 지지,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아동들의 놀이가 왜 중요한지, 아동들의 놀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아동들의 놀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사의 가치관 형성과 자기 철학을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강좌가 될 것입니다.

☞ 교육장 찾아오는 방법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하차 3번 출구에서 직진 → 장충동사무소방향으로 우회전 → 장충동사무소에서 100미터 → 왼쪽에 빨간색 벽돌 건물 여성평화의 집 지하교육장

지하철 2, 4,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하차 4번 출구 → 고가다리 밑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후 → 오른 쪽 길을 따라 걷다가 → 경동교회를 지나 → 장충동사무소방향으로 좌회전 → 장충동사무소에서 100미터 → 왼쪽에 빨간색 벽돌 건물 여성평화의 집 지하교육장

국악교실

우리 아이들의 적극적인, 살아있는 문화 체험을 위해 준비되는 말뚝이 문화체험학습, 그 네 번째 체험 학습은 국악교실입니다. 어린이들이 조금은 멀리 있기도 한 우리의 국악을 새롭게 접해보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시: 3월 23일(토)

장소: 정동극장

참가비: 35,000원(말뚝이 개인회원 2명까지 5,000원 할인 / 차량이용시 5,000원 추가 / 공연관람비, 팝플렛비, 간식비 포함)

행사 프로그램:

2시 40분 - 오리엔테이션 / 3시 - 장고 교실 (공연이 이루어지는 무대에서 직접 / 선생님과 장구를 배우고 쳐 보는 시간) / 3시50분 - 간식 / 4시 - 정동극장 국악 정기 공연 관람 / 5시 30분 - 뒷풀이(김삼문 작성, 사진촬영시간) / 6시 30분 - 해산

참가방법: 말뚝이로 전화신청

신청기간: 3월 20일까지 선착순 50명

문의 및 신청: 930-7832 / 016-9676-7750 (김혜영)

입금계좌: 기업은행(예금주: 회숙자)

133-029367-02-011

강화 은암 자연과학박물관

은암 자연과학박물관은 말 그대로 자연대백과사전이다. 새, 동물, 조개, 물고기, 곤충 등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이 곳에 전시되어 있다.

이용안내: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

입장료: 일반 4,000원 / 초·중·고생 3,500원 / 유치원생 3,000원

가는방법:

대중교통 >> 신촌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강화행, 중점역에서 택시(₩5,000원 소요) 당산리행 버스 이용 (당산리행 버스 시간표: 6:10 / 7:10 / 7:50 / 9:15 / 10:45 / 11:45 / 1:35 / 2:40 / 4:15 / 5:55 / 7:00 / 8:00)

자가용 >> 강화대교를 건너 강화를 지나 하점 방면으로 진행, 송해삼거리에서 우측도로인 송해면사무소

방면으로 계속 직진, 해병대 검문소를 지나 약 3~4km 가량 계속 나가면 왼편으로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의 모습이 보인다.

장애아 통합교육

대 상: 보육시설 종사자

강 사: 홍은주 원장(목련어린이집)

일 시: 2002년 04월 11일 목요일

장 소: 서울시보육정보센터 교육실

시 간: 14:00~17:00

내 용: 장애아 통합교육에 필요한 장애아의 이해 및 발달 특성, 교사의 역할, 장애아 적응프로그램, 교사교육, 통합프로그램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 의: (02)772-9814-9

<인천> 교사 강습 - 유아 국악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꼭 나만 했을때 놀면서 불렀던 노래와 놀이

날짜: 2002년 6월 8일 - 29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1시

장소: 풍물깨비 공간

강습비: 100,000원 (교재, Tpy, 간식 포함)

계좌번호: 216031-56-079609 (농협: 유지민)

문의: (032) 529-0215 011-9002-6542 (최은하)

아이들과 함께 풍물을 이어가는 사람들 "풍물깨비"가 선생님들을 모십니다 (선착순 모집)

<울산> 교육인형극 강아지동

작자: 원작/권정생 극본/장창호 연출/손동택

일시: 2002년 3월 6일(수) - 3월30일(토)

평일 10시20분, 11시20분

토요일 오후 2시, 4시 (일요일은 공연이 없습니다)

장소: 소극장 이슬(공업탑로터리 배원예농협 빌딩2층)

문의: 052-258-1248 www.aesop21.co.kr

극단: 꼬마극단 이슬

입장료: 한매 7,000원 할인권 5,000원

☎ 7665-210, 3663-6652

<안산> 소방 안전 견학교육

2001년의 어린이 교통안전 견학교육에 이어 2002년에는 소방안전 견학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으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육은 4월과 5월중에 실시 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시설에서는 미리 정보센터로 전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만 5-6세 아동

교육시간: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1시간 소요) (교육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1. 훈련탈출용 로프 하강 시범
2. 순간진화기 사용 시범
3. 소방차량 방수 시범
4. 에어매트 탈출시범
5. 소화기 실제 사용법 교육
6. 물소화기 사용법 교육
7. 에어매트 탈출법 교육
8. 로프 하강
9. 구급교육(심폐 소생술 인공호흡, 가정응급처치 요령등)

교육장소: 안산소방서 훈련장

교육접수

3월 31일까지 전화접수(031-410-5394) (자세한 교육날짜는 접수후, 추후 시설로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교육비: 무료

<안산> 학부모 상담법

일시: 3월 26일(화) 저녁 7시~9시

장소: 정보센터 3층 강당

교육비: 10,000원

강사: 손순복 (서울 평문심성어린이집 원장 / 안산1대학 겸임교수)

내용

1. 부모상담의 중요성
2. 상담을 준비하는 교사의 자세
 - 전문성을 가진 교사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어떤 자세를 가진 교사여야 할까?
3. 부모 상담에 임하는 자세
 - 듣기,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
 - 부모 유형을 탐색하자
 - 상담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4. 마무리

신청 및 기간

3월 23일까지 전화접수(410-5394)후 계좌 입금(선착순 60명)

- 교육등록은 계좌 입금 확인후 됩니다.

입금계좌

입금계좌: 농협 211063-61-062790

예금주: 안산보육정보

중앙소식

- 1월 8-9일 여연총회에 이윤경, 이기원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1월 11일 보육시설의 아동건강관리 프로그램 모형개발 건강교사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진행된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 1월 12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실에서 주최한 보육관련단체장 간담회에 이윤경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육현황과 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전달되었는데 우리 회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아동보육료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습니다.
-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연대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단체별 활동일정을 나누고 추진연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1월 15일 여연복지와 가족본과 세미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1월 15일 복지부주최로 열린 2002년 보육사업 안내 개정 검토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우리회의 건의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고용할 때 부당한 계약내용(결혼할 경우 퇴직한다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 1월 16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연대 주최 개정법안 검토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1월 16일 김홍신의원실과 정부법안과 기존개정안 조율을 위한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김홍신의원실,

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이 참석하였습니다.

- 1월 21일 법안 조율을 위한 2차 검토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1월 24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YTN(케이블뉴스 채널)과 보육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1월 24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중앙일보 보육기획사 기획회의에 참여하여 자문을 하였습니다.
 - 1월 25일 재정경제부에서 주최한 보육관련단체 간담회에 이윤경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회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보육발전의 우선 과제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1월 26일-27일 제6차 정기총회 및 겨울수련회가 실시되었습니다.
- 이기원, 이윤경 선생님이 신임공동대표로 당선되었으며, 이명숙, 한혜정 선생님이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26일에는 조직, 정책, 교육으로 팀을 나누어 각 부분별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모아 함께 몸으로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27일 오전에는 정기총회를 진행하여 2002년 사업계획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 2월 4일-6일간 일한보육교류연수협의회 선생님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일보육교류 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2월 5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여성위원회 주최 여성단체장 산년간담회에 이윤경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2월 6일 전진상교육관에서 본회 주최로 '보육교사처우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힘모이기 토론회'를 개최되었습니다. 약 130여명의 보육교사들이 모여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2월 6일 한국어언 사무국장연석회의에 이경너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 2월 8일 서울시 보육위원회회의에 이윤경공동대표가 보육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2월 16일-17일 2002년 확대간부연석회의가 실시되었습니다. 각 지부별로 지부장과 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2002년의 지부사업과 중앙사업의 세부계획과 일정을 공유하였으며 지부간 네트워크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 2월 19일 여연이사회에 이윤경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2월 20일 월간 좋은 엄마와 이윤경공동대표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 2월 20일 아동건강관리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건강교사모임이 있었습니다. 건축사 선생님을 모시고 어린이집의 시설환경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참가 어린이집의 2002년 아동건강관리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 2월 28일 여연복지위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복지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지부 소식

서울지부

- 2월 24일 회원 나들이로 남산 한옥마을에 다녀왔습니다.
- 2월 21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위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과 중견이상의 회원이 모여 특별 대책위 구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3월 30일에는 3월 월례모임으로 권태식한의원 선생님을 모시고 한방검진과 건강상담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인천지부

- 2월 16일 임시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인천지부의 2002년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 인천 3.8여성대회가 3월 5일에 진행되었습니다.
- 인천시 보육조례와 관련하여 현재 법률 검토중입니다.

광주전남지부

- 수익사업 잘 마무리하여 박화명 선생님께 수익금의 일부를 전달하였습니다.
- 2월 23일 월례회를 하였습니다. '다시 생각하는 공동체교육'이라는 주제로 회원 토론을 하였으며 단팍친구(수호천사)도 뽐냈답니다.

부산지부

- 지회별로 새로이 공부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친구지회는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로 내용을 잡았습니다. 이 공부와 더불어 당면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지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동래지회는 '비고이츠키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다른 회원들을 위해 올동비디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사상지회는 그림으로 보는 유아 미술치료를 더 심화해서 할 예정입니다.

금정지회는 교육관에 대한 토론과 주제에 따른 아동관찰 및 각 어린이집의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정보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사람과 사람들

축하합니다

- 서울의 최현희 선생님이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지금은 시댁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산후조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의 심현정 선생님이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경험을 살려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일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목포의 김행미 선생님이 3월 3일 일요일 구례에서 결혼했습니다. 멀리 있어 직접 축하는 못드리지만 행복하게 사세요.
- 경기의 강영신 선생님이 드디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보육교사에 지부장까지 하면서도 졸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 억척스러움과 끈기에 진심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짹! 짹! 짹!

· 인천의 이연순 선생님이 3월 30일에 결혼합니다. 남편분과 친구로, 동지로, 애인으로 오래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 이은애 선생님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낳았지만 다행히 자연분만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새로운 출발에 박수를...

- 서울의 주혜선 선생님, 이상옥 선생님이 이사하셨습니다. 주혜선 선생님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이상옥 선생님은 조금 넓혀서 이사하셨습니다. 새 기분 새 마음으로 활기차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 서울의 김인경 선생님이 2월부터 구로의 꾸러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십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의 황순옥 선생님이 2월까지 근무하시고 새로운 일을 찾으십니다.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항상 몸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 서울의 차윤희 선생님이 3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가십니다.(부럽죠?) 1년 안에 둘째아이를 임신해서 출산까지 모두 계획하고 계시는데, 바람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배우는 풍물도 만일 아이를 갖게되면 살살 치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의 박영미 선생님이 서울지부의 교육부장을 맡기로 하셨습니다. 두 명의 아들을 키우느라 휴직중임에도 서울지부의 한 역할을 맡아주신 선생님의 열정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 부산의 이미정 선생님이 새로이 부산의 편집부

장이 되었습니다. 야심찬 부산회지를 기대해도 되지요?

(부산지부) 01년 12월 완납
(평생회원)

· 저희 회 회원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저희 회가 한일보육교류를 하는데 도움을 주신 김덕환 선생님이 한국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전도사로 지낼 예정입니다. 모쪼록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최순옥 23차 10만원

(회원회비)

이명숙 10만원

(자료회원)

이미경, 장세자, 최영신, 한규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순옥 10만원, 조선경 10만원, 은수미 2만원, 김희자 2만원, 서은희 30만원. 중앙 상근자의 상여금으로 용도지정

환영합니다.

- 부산의 강민정 선생님, 최현주 선생님, 김성희 선생님, 서울의 이은영 선생님과 장명신 선생님이 새로이 회원 가입을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보육교사회의 매력 앞에 그대들은 모두 무릎을 꿇으리... ..
- 광주전남의 박화명 선생님은 여러분 모두의 기운을 받아 지금은 무사히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으며 다시 원래의 짙은 여자가 되기 위해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수련회에서 건강한 얼굴을 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의 임미화 선생님은 때 아닌 수두에 걸려 고생했습니다. 지금은 다 낳았다니 다행이네요. 예쁜 얼굴에 흥지면 안되지요.

회비를 내셨습니다. (02년 2월말 기준입니다.)

(서울지부) 2월 완납

(인천지부) 1월 완납

(경기지부) 1월 일부

(광주지부) 01년 12월 완납

본외 1 · 2월 월동일지

1월

8일	2002년 겨울수련회 준비팀 회의
10일	건강교사모임
13일	부산지부 총회
1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연대회의
15일	2002년 겨울수련회 준비팀 회의 여언복지위 가족분과 새마나
16일	집행위
19일	제 4차 총준위
26일~ 27일	제6차 정기 총회 및 겨울수련회

2월

4일~6일	한일보육교류 10주년 기념식 기획회의
6일	보육교사처우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힘모으기 토론회
15일	집행위
16일~17일	2002년 확대간부연석회의
19일	여언 이사회
20일	건강교사모임
21일	집행위
22일	한일보육교류 10주년 기념식 기획회의
26일	관악지역 보육모임 회의

편집부에서

'인물탐방기', '사이버 정보망'과 '세상 읽기'는 지면 관계상 이번호에 쉽니다.

참 할일 많은 3월입니다. 기본적인 일들로도 마음 바쁜 3월인데 정부는 우리가 할 일을 더 만들어 주는군요. 그래도 한 편으로는 기쁘네요.

정부의 실수(?) 때문에 모처럼 거리에서 구호도 외치고 우리 회원이 아닌 다른 보육교사 선생님들도 만날 수 있어서요. 그럼, 우리 정부에 고맙다고 감사패를 쥐야 하나요?..

〈표지설명〉

지난 3월 10일 세계 3·8 여성의 날 기념 여성대회에 참석해서 '보육의 공공성 확대, 우리들이 낸 세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노란색 풍선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장면입니다. 풍선의 글씨가 안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설명을 달아보았습니다.

보육교사 2급

1급

-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2급

-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교사선언문

-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정회원이 되시면.....

- 매월 1만원(연회비 12만원)+ 지부/지회별 일정회비를 납부합니다.
- 지부, 지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회원의 권리로써 사업에 대한 의견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지부/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관례자료 구입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준회원이 되시면.....

- 연 6만원의 회비+ 지부회비를 납부합니다.
- 중앙 및 지부, 지회의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회원이 되시면.....

- 연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 격월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 1년 구독과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강좌와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 월 5,000원 이상의 후원을 하고,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외비납부는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으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2275-8505)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본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 e-mail: kdta@chollian.net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wawbest@jinbo.net